

제 4 부



심의 의결사례



제1장 자체심의



제2장 시정요구심의





제1장 자체심의의



1. 경고

의결번호	2017대선-자심4
언론사	주식회사 미래한국미디어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9, 4층 대표이사 김범수
심의대상기사	미래한국 2017년 4월 5일자 8~14면 「정권이 바뀐다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까」 및 26~29면 「5·9대선은 체제수호 vs 반체제 전쟁」제하의 칼럼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의 이념에 대해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는 칼럼을 게재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의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7조(정치적 중립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 내용

정권이 바뀐다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까,
중북좌파세력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파쇼사회로 전락

김정은 미래한국 편집위원

2017년 5월 9일. ‘고영태-손석희 게이트’를 빌미로 ‘언론의 난’이 일어나고 마침내 ‘탄핵반란’을 일으킨 지 198일째 되는 날. 거짓이 참을 이기고 어둠이

빛을 가려 끝내 정권마저 바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있어서는 아니 되는 그날이 오면 애국태극기 물결은 어떻게 싸워야 할까. 지옥으로 가는 묵시록과 대한민국을 살릴 아마겟돈의 괴로움을 곱씹으며 풀어 나가보겠다.

묵시록이 된 ‘그 날이 오면’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고 스탈린-모택동-김성주(김일성)를 따르며 폭력혁명을 기획하고 화염병을 던졌던 80년대 운동권들에게, 돌이켜보면 전두환 정권은 참으로 순하다 순한 독재정권이였다.

생각해보라. 우리 국민들이, 폭동으로 국가기간 시설을 마비시키고 평양 역도들의 줄개가 되어 나라를 뒤엎는 도시게릴라 전쟁을 벌이겠다는, 이석기의 통진당 실체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나. 그런데 80년대 운동권들은 통째로 RO 조직이었다.

그럼에도 전두환 정권은 반체제 반국가사범 단속이라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직선제 대통령이 아니라는 강박 관념 탓에 늘 여론을 지나치게 신경 썼다. 그 덕택에 80년대 운동권은 뿌리 뽑히기는 커녕 무럭무럭 자라 1986년에 이르러 이미 대학가에서 반공이란 말은 사라져버리고

‘양키고춤’이 당연시되어 버렸다.

다wz 말든 5공은 파쇼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제 참말 파쇼정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멀리 갈 것 없다. 몇 해 앞서 교학사 역사교과서와 올해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 과정을 보라. 전멸했다. 전교조는, 언론노조는, 민노총은, 극우사대중북부패운동권은, 촛불반란군은 단 한 곳의 예외도 허락하지 않는다.

100% 투표에 100% 찬성으로 이뤄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선거처럼 앞으로 그들이 그리 해야 한다고 믿거나 말하는 곳에서 다양성이란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진보의 반대말인 반동일뿐이다. 그것이 곧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말만 들어봤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파쇼다.

중북파쇼의 힘은 이미 언론노조가 질릴 만큼 보

10 COVER STORY

2019년 4월 11일 | 대한민국

*** 반들이벌어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파쇼다. 중북파쇼의 힘은 이미 언론노조가 질릴 만큼 보여졌다. 2001년 첫 번째 소수인 사건과 2008년 유공명 단속 때 언론방송의 아나사운은 그저 보조기였다. 그때는 아나사운만 열지 않으면 편집하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2011년 세월호 그리고 2015년 탄핵관련 때는 다르다. 단 한 곳의 예외도 없는 미디어가 아나사운 되고 아예 인연재판까지 배웠다. 막 끝 MBC에서 정승근인 언론노조에 압박 있었어 겨우 태극기집회 및 몇 보도했다고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MBC 방송본부에서 사퇴시킨 논설위원 실장을 알게 되고 김 박하는 본래인물 보라, 다시 MBC를 자랑스러운 풍우행 난동

의 MBC로 돌아간다. MBC를 SBS와 같은 노정방송으로 뒤집으려 하다 쫓기던 이들을 제직인원이라고 하지 그 무슨 민주화공자처럼 불려다줘 복직시키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함께 한 언론방송 노조장악행 을 만들어 일어났었다. 중북파쇼는 대한민국 모든 언론방송인력들을 단 하나의 미디어 밖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조선중앙방송과 노무신분과 똑 같이 만들 것이다.

불평선언이 될 해극대극기 물결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운도 생길 것이다. 이미 생문화에서 5-16이 무태어나 아나사 간헐 다투듯이 공개 사상 강연하는 것을 많이 봐왔다. 앞으로는 촛불시위연행이 나갔느냐 그걸 아예 생각하느냐 물을 것이다. TV에 나오는 고리급 골지시만

3월 10일 19대 대선일이 탄핵된 노무신분을 퇴진시킨 1989년 11월 17일(노무신 퇴진)과 2019년 4월 11일(노무신 퇴진)은 29년 2개월 24일이 지난 것이다. 노무신 퇴진 29년 2개월 24일이 지난 것이다. 노무신 퇴진 29년 2개월 24일이 지난 것이다. 노무신 퇴진 29년 2개월 24일이 지난 것이다.



대한민국 | 2019년 4월 11일

COVER STORY 11

*** 아나사 언론노조 직할의 언론방송, 인력대 확충과 인사교과는 말할 것도 없고 고2만 국민대사부터 본격적인 부대까지 모든 언론방송분야에서 아나사 사회 곳곳에서 유하는 사상 강령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못 떠날 듯 5-18비밀공작팀과 '정승근'을 비롯된 온갖 사상 강령의 도구들을 잔뜩 장악하고 있다. 위에 말했다 "그 사건들 다 어디 갔어, 조선시대도 아닌데 왜 5-18 유공자 사적들이 유서체로 공작과 좋은 일자리를 다 책임이해", 이 리 올분을 뺀연연 내고 강속 갈 날이 온다. 서울에서 강령에서 성소수자란 개념을 쓴 별태들이 우리 세대로부터 속에 열면서 날이 살기 끝의 자살을 나눠주는데 아니 받고 화대로 내던 모욕이라고 경찰서 들라기라 할 날이 반드시 온다. 그랬어왔는가.

아수인과 박정희를 무관심시 할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목욕물 (백년전쟁)은 아예 인가배우를 총동원해 TV 대드라마의 형으로 만들어서 500억을 세우길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그를 사살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교에서 반동으로 따돌림 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년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도 수행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것이며 그 내신은 교육청정보시스템(ONSIS)으로 풀듯이 관리되어 아이에게 취미와 사회생활까지 평가 하리던 것이다.

그러하여 아수인과 박정희의 단선 한 세대의 남을 잊우고 애국대극이 불평은 반체제 사범으로 특별선정된 것이다. 때가 되면 수백명이 국민의 지팡이에서 촛불 지팡이로 옮겨질 것들 들은 아예 쓰러지고 11월 8일 첫 해극대극기집회까지 1월 25일 까지 그리고 앞으로 열리게 될 해극대극기집회까지 남이든 해극대극기 집회들을 계속해 놓는다. 상시연행 7년, 운영연행 15년, 보급-제아-교제 운영연 50년의 해극대극기 전력은 이제부터 2등 시민으로 평등 척으로 탈취된 반동계급으로 분류되어

이제 진정한 파쇼정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멀리 갈 것 없다. 몇 해 앞서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올해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 과정을 보라. 전멸했다. 전교조는, 언론노조는, 민노총은, 극우사대중북부패운동권은, 촛불반란군은 단 한 곳의 예외도 허락하지 않는다. 100% 투표에 100% 찬성으로 이뤄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선거처럼 앞으로 그들이 그리 해야 한다고 믿거나 말하는 곳에서 다양성이란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진보의 반대말인 반동일뿐이다.

21세기 불평선언(不道憲, 후대예행선) 일본의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조선인들을 기억된 용이로 심본으로 글로고 언덕을 걷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아예 들어오지 는 막 걸고 열심히 온 뺀고 살면 된다.33 태도 없는 스카라. 시 가지 선택(Option)이 있다. 먼저는 위에 말한 현대판 용이제(龍龍制)다. 5.18 유공자와 '민주화운동 유공자'란 이름의 세습운동권 귀족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 밖에 아무 해가 없었다. 이미 13년 앞서 2004년 통계로 국가직-지방공무원 시험에서 5-10%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이들이 9급은 85.6%, 7급은 89.4%, 6급인 시가지보와 국회의원들은 99%

란다. 이리더 노량진에서 10수를 한다 한들 용해는 재수가 있어도 공무원이나 '좋은 일자리' 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 다. 이게 더 일기어이다. 그에 '촛불 유공자'가 또 불을 것이다. 당선들은 해 해지게 온 뺀고 월장 내고 당선 자식들은 길게 있어도 공무원이나 '좋은 일자리' 가져오는 꼴도 못 꾸며 21세기 사대부 '운동권 귀족'을 밑에서 마초모로 산 수 밖에 따돌림 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년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도 수행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것이며 그 내신은 교육청정보시스템(ONSIS)으로 풀듯이 관리되어 아이에게 취미와 사회생활까지 평가 하리던 것이다.

그리고도 평등 척으로 탈취된 반동계급으로 분류되어

필할 길은 세가지지 선택

'민노총' 장부' 다. 일 단한 대신 주지들이 벌여버려서 힘센 민노총에 가서 더 들리붙었는데 정권이 바뀌면 또 하나이다. 노무신 때는 그대로 상경이나 대기업 발원인이라도 있었고 장어인데 같은 시면에서 거연은 온 운동권들이 눈치라도 보여서 사냥을 했지만 아예는 거침이 없다. 민노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인력의 계층수가 될 것이

어졌다. 2004년 첫 탄핵소추안 가결과 2008년 광우병 난동 때 언론방송의 마녀사냥은 그저 맛보기였다. 그때는 마녀사냥만 했지 인민재판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그리고 2016년 탄핵 반란 때는 다르다.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모든 미디어가 마녀사냥 하고 아예 인민재판까지 해버렸다. 딱 한 곳 MBC에서 점령군인 언론노조에 펍박 맞으며 겨우 태극기집회 몇 컷 보도했다고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이 훼손되었단다.

MBC 방송토론에서 사회자원 논설위원 실장을 앞에 두고 겁박하는 문재인을 보라. 다시 MBC를 자랑스러운 광우병 난동의 MBC로 돌리란다. MBC를 SBS와 같은 노영방송으로 뒤집으려다 쫓겨난 이들을 해직언론인이라 마치 그 무슨 민주화유공자처럼 불러대며 복직시키란다. 그래서 이 모든 문

제를 없애려 '언론방송 노조장악법'을 만들자 밀어붙인다. 종북파쇼는 대한민국 모든 언론방송인터넷을 단 하나의 미디어 밖에 없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과 똑같이 만들 것이다.

블령선인이 될 애국태극기 물결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준도 생겨날 것이다. 이미 청문회에서 5·16이 쿠데타냐 아니냐 간첩 다루듯이 공개 사상 검증하는 것을 많이 봐왔다. 앞으로는 촛불시민혁명에 나갔느냐 그를 어찌 생각하느냐 물을 것이다. TV에 나오는 고위급 공직자만 아니라 언론노조 직할의 언론방송, 인터넷 취업과 인사고과는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만 극단에서부터 큼직한 무대까지 모든 연극영화문화예술에서 마침내 사회

12 COVER STORY

2017년 4월 15일 **미래한국**

19 > 다. 그 전노동자 결투라 불리는 연노송의 나라에서 당선되면 시범을 보일 것이다. 온 이고 머리 돌아가면 수다만 벌 거지 않고 다들 내리 보내 버려 나간다. 그의 뒤엔 비리 흥기만 가진 게 없는 당선 자처는 어느 개인에 가서 용이 되겠다.

그때도 약자들이 온 별들라고 그래서 사바지 약용의 선택지가 기다려 있다. 제2 노조가 온다. 트럼프는 "전라적 인내 안 이용으로 시간만 잃고 파오 오메가 아니다. 그리고 희생탄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인제철선이다. 그래서 시드를 갖다놓는 것이다. 전쟁이 나면 왜 미군이 가장 먼저 죽어야 하는가. 알성이 트럼프라면 그의 해는가. 그래서 주한미군을 지키는 병이되어 사드라. 그들이 살아야 싸우는 법은 갖지 않거나. 그러나 그의 싸우겠다는. 내전 같은 전사자전투에 연도 맺었다. 김정운은 우리민중에게리 잘해줬었다. 주권이 온이 마치고 민중운동이 사라지면 달리는 순식간에 다 빼앗긴다. 10월 별해 있었다. 그때 무슨 수로 돈을 벌었다.

그렇게 전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이 느닷없이 제너수했다가 되고 우왕들이 돌 돌린 자수의 나라가 되어 모두가 거지국 판다면 김정운은 굳이 사투를 꺼낼지 않다. 여자의 날조선에서 알이여 통진당이 될것이라고 그리고 대한 고정강선에서 아예 드러내놓고 경사할 할 때니 그들은 손에 피 묻히게 하면서 그사이에 날조선에 남은 국뽕을 세 글로써 빼앗겼어 뽕이 될 것이다. 그의 사퇴의 부름 들리며 국가유공자에 있어 있는 자유인 이면의 노예화하게 되올까 이제 불거놓는 남조선 반통들에게 철저의 혁명화과정을 거치게 할 것이다.

태극기가 있었단 걸때 마저 후보에서 밀린 지금, 태극기 세력은 그때는 세 갈래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주저않는 것이다. 대신 보이듯이 아니다. 화려한 실을 10년 끌어와 왔다. 둘은 레지스탕스였다. 이때 좌파도 저당 쪽으로 목을 걸고 싸우는 것이다. 셋은 그대로 비열연대로 선기 쳐보는 것이다. 이것은

정권을 빼앗기엔 아성기들의 젊은 이휘저지 않을 것이다. 숨길 수 없는 자의의 아들이 임하는 대한민국의라야이로써 제 목숨을 지킬지는 관망이 될 것이다. 아성이 그런 일투그 자신이 불거져 대야 하는데 타고 보니 꽃산이될 수가 있다. 앞으로 태동고 죽을의 곳만큼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모르겠는 거. 그들은 지난 30년 단 한 초래도 그 정사에서 순해 본적이 없다.

물라지 빼는 이들에게

물라지 보라. 1-2월 그 급작같은 때에 자유한국당이 무슨 짓을 했나. 그때 당 이름 바꾸고 양광한 것 하지 않고 '고양태손회'로

게이트' 특유의 열이 죽어라 빼달았으면 현재 김정인들이 그리 환백한 80 명의 담합 까지 지켰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유한국당 물론 무라웠든 마음이 풀림에 가졌었던 관망이 어쨌든 단박한후의 엄청난 부자자들이 되었다. 그 인제적이었던 나을 자식인들은 무엇을 했다. 그때들이 연세 태극기 문 손들었다. 내를 못잡고 저지러있지 않다. 티는 간첩자계 혼수 물 일이나니며 또 들을 만큼 누구도 하지 않았다.

통제일이 되어도 하기 나름이란 이들이 제법 많다. 안희정 이 되면 티 좋고 사되아도 문희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한다. 잘 캐라. 그들의 뿌리는 공산당이다. 그들은 오로지 리 대한민국을 온통권한 색인으로 만들지는 커녕 통로로 사을 올분 삼긴 태조로. 김동원 박태준이 공동경관으로 시의 당을 지분 가질 태조로. 김동원박태준이 대공계명을 죄다 취할만 자들이다. 노원 때 그 때로 노수정은 비법적 첩자가 노원이 더 노이겠고 율문을 태리는 자들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물라지 빼'다. 일제시대까지 독립군 들을 들지는 못할정기 되왔노 하지만은 갈 되다가 붙였는데 훈공단의 정령관 안에 있는 500여명 20대까지 율부 지들은 오늘날은 정령관으로 올로리는 사당들이다. 대한민국이 비로소 잘 되가고 있지 않나 아직도 노는 리 >>

대한민국이 비로소 잘 되가고 있지 않나 아직도 노는 리 >>

미래한국

2017년 4월 15일

COVER STORY 13



19 >> 뿐만 보면 물라지 라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많을 한데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하기 나름이란 것은 어찌의 저체로 세기적은 될 것인데 일괄일하므로 한때 제이 보다가 가가나 아니면 비로 가가나 그다음일 뿐이다. 민지 죽은 무질이나 최 가나 6.25 칸노 죽은 박정영이나 제기 타던가.

정권을 빼기엔 아성기들의 젊은 이휘저지 않을 것이다. 숨길 수 없는 자의의 아성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리정어 아니라 단 별이 될 것이다. 아성이 트럼프라면 그의 해는가. 그래서 주한미군을 지키는 병이되어 사드라. 그들이 살아야 싸우는 법은 갖지 않거나. 그러나 그의 싸우겠다는. 내전 같은 전사자전투에 연도 맺었다. 김정운은 우리민중에게리 잘해줬었다. 주권이 온이 마치고 민중운동이 사라지면 달리는 순식간에 다 빼앗긴다. 10월 별해 있었다. 그때 무슨 수로 돈을 벌었다.

2017년은 실재했다27 아니다. 그 때 노태우 정부의 힘을 촉매면서 관내 김정양의 당선을 이었다. 이리저로 김정양은 처음부터 우리민중에게리 최치면서 현안상과 김정남을 앞세워 온

트럼프는 전하의 양로 안 이용으로 시간만 잃고 파오 오메가 아니다. 장영이 내리 해이같이 거두 양로 해야 하는 거. 장영이 트럼프라면 그의 해는가. 그래서 주한미군을 지키는 병이되어 사드라. 그들이 살아야 싸우는 법은 갖지 않거나. 그러나 그의 싸우겠다는. 내전 같은 전사자전투에 연도 맺었다. 김정운은 우리민중에게리 잘해줬었다. 주권이 온이 마치고 민중운동이 사라지면 달리는 순식간에 다 빼앗긴다. 10월 별해 있었다. 그때 무슨 수로 돈을 벌었다.

문권의 발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2002년 노무현의 당선인 2008년 이명박의 조기 무력화. 마침내 세월호 부지런 멀지 않아 노조공민 제노공민 할아는지 갈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노수정공민조 앞서 모자른 제노공민. 가는 목자부에서 건 다별이 될 것이다.

결국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죽는 길밖에 없다. 이 나라에서 가장 한심한 노수정공민조와 제노공민이 넘쳐서 부지런 멀지 않아 노조공민 제노공민 할아는지 갈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노수정공민조 앞서 모자른 제노공민. 가는 목자부에서 건 다별이 될 것이다. 아찌 해는가. 최용수다. 조영이 을사노략을 뒤집어 1005년 11월 17일이나 아찌고 이찌부터 독립전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

곳곳에서 우리는 사상 검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못 미더운 듯 ‘5·18비판금지법’과 ‘동성애 등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공개 사상 검증의 도구들을 잔뜩 쟁여놓고 있다. 위에 말했듯 “그 사진들 다 어디 갔어, 조선시대도 아닌데 왜 5·18 유공자 자식들까지 음서제로 공직과 좋은 일자리를 다 싹쓸이해”, 이리 울분을 뱉으면 벌금 내고 감옥 갈 날이 온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성소수자란 가면을 쓴 변태들이 우리 세금으로 쿨어 축제 열면서 남녀 성기 꼴의 과자를 나눠주는데 아니 받고 화라도 내면 모욕이라고 경찰서 들락거려야 할 날이 반드시 온다. 그 뿐이겠는가.

이승만과 박정희를 부관참시 할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독극물 <백년전쟁>은 아예 인기 배우들을 총동원해 TV 대하드라마와 영화로 만들

어져 5100만을 세뇌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그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교에서 반동으로 따돌림 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신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려고 수행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것이며 그 내신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꼼꼼히 관리되어 아이의 취직과 사회생활까지 평생 따라다닐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박정희 탄신 한 세기의 날을 앞두고 애국태극기 물결은 반체제 사범으로 특별관리될 것이다. 때가 되면 속절없이 국민의 지팡이에서 촛불 지팡이로 뒤바뀔 경찰들은 이 날에 쓰려고 11월 6일 첫 애국태극기집회부터 3월 25일까지 그리고 앞으로 열리게 될 애국태극기집회까지 낱알이 애국태극기 국민들을 채증해 놓았다. 상시전력 7만, 동원전력 15만, 보급+예비+교체 총전력 50만의 애국태극기 전력은 이제부터 2등 시민으로 평양식으로 말하면 반동계급으로 분류되어 21세기 불령선인(不逞鮮人. 후테이센진-일본의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조선인들을 가리킨 용어)의 신분으로 골고다 언덕을 걷게 될 것이다.

그래도 세상이야 어찌 돌아가든 눈 딱 감고 열심히 돈 벌고 살면 된다고? 택도 없는 소리다.

세 가지 선택(Option)이 있다. 먼저는 위에 말한 현대판 음서제(蔭絀制)다. ‘5.18 유공자’와 ‘민주화운동 유공자’란 이름의 세습운동권 귀족들이 엄청나게 쏟아진 게 벌써 스무 해가 지났다. 이미 13년 앞서 2004년 통계로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



<미래한국 2017년 4월 5일자 8~14면>

에서 5~10%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이들이 9급은 85.6%, 7급은 89.4%, 법원 서기보와 국회직 8급은 95%란다. 이러니 노랑진에서 10수를 한다 한들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공무원이나 ‘좋은 일자리’ 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게 다일까? 아니다. 그에 ‘촛불 유공자’가 또 붙을 것이다. 당신들은 뼈 빠지게 돈 벌어 세금 왕창 내고 당신 자식들은 실력 있어도 공무원이나 ‘좋은 일자리’ 가까이 가는 꿈도 못 꾸며 21세기 사대부 ‘운동권 귀족’들 밑에서 머슴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럼 그 강요가 먹히지 않는 민간기업에 가면 되냐고? 그리 버틸 배짱 있는 사업가들이나 자산가들도 찾기 힘들지만 그래도 있을 때를 헤아려 둘째 선택처가 있다.

피할 길 없는 세 가지 선택

‘친노동자 정부’다. 알 만한 대선 주자들이 벌써부터 힘센 민노총에 가서 다 들러붙었는데 정권이 바뀌면 보나마나다. 노무현 때는 그래도 삼성이나 대기업 발언권이라도 있었고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 가면을 쓴 운동권들이 눈치라도 보는 시늉을 했지만 이제는 거침이 없다.

민노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인맥의 저수지가 될 것이다. 그 친노동자 정부라 불리는 ‘민노총의 나라’에서 당신이라면 사업을 하겠는가. 돈 있고 머리 돌아가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다들 나라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리 되면 머리 좋지만 가진 게 없는 당신 자식은 어느 개천에 가서 용이 되겠는가.

그래도 약착같이 돈 벌겠다고? 그래서 마지막 악몽의 선택처가 기다리고 있다. 제2 IMF가 온다. 트럼프는 ‘전략적 인내’란 이름으로 시간만 끌던 좌파 오바마가 아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인계철선이다. 그래서 사드를 갖다놓는 것

이다. 전쟁이 나면 왜 미군이 가장 먼저 죽어야 하는가. 당신이 트럼프라면 그리 하겠는가. 그래서 주한미군을 지키는 방어막이 사드다. 그들이 살아야 싸우든 말든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걸 치우겠다는. 내친 김에 전시작전통제권도 빼겠다는. 김정은과 우리민족끼리 잘해보겠다는. 주한미군이 떠나고 한미동맹이 사라지면 달리는 순식간에 다 빠져나간다. IMF를 벌써 잊었다. 그때 무슨 수로 돈을 벌겠나.

그렇게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이 느닷없이 베네수엘라가 되고 우방들이 등 돌린 자주의 나라가 되어 모두가 거지가 된다면 김정은은 굳이 서두를 까닭이 없다. 어차피 남조선에서 알아서 통진당이 되살아나고 그보다 더한 고정간첩들이 아예 드러내놓고 장사를 할 테니 그놈들 손에 피 묻히게 하면서 그 사이에 남조선에 남은 국부를 제 금고로 빼집없이 빨아들일 것이다. 그리 서서히 뜬을 들이며 지구마을에서 살아 있는 지옥인 야만의 노예사회에 적응하기 아예 불가능한 남조선 반동들에게 철저히 혁명화의 과정을 거치게 할 것이다.

태극기가 믿었던 김진태 마저 후보에서 밀린 지금, 태극기 세력은 그때는 세 갈래로 나뉘질 수 있다. 하나는 주저앉는 것이다. 대선 보이콧이 아니다. 하려면 3월 10일 했어야 했다. 들은 레지스탕스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다. 셋은 그래도 비문연대로 선거 치르는 것이다. 이것은 머리 짜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벼랑 끝으로 밀려가면서도 이 악물고 버텼던 나라사랑하는 마음의 흐름이다. 뛰어난 전략가가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가. 그리 할 수 있다면 워싱턴에서 바로 모셔갈 것이다. 어느새 옛 여권이 되어버린 여의도 사람들과 함께 나름 지식인이라는 이들도 함께 애국태극기 물결에 탄핵 당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끝까지 해매는 이들에게

돌아켜보라. 1-2월 그 금쪽같은 때에 자유한국당이 무슨 짓을 했다. 그때 당 이름 바꾸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고영태-손석희 게이트' 특위를 열어 죽어라 매달렸으면 현재 겁쟁이들이 그리 완벽한 8:0 '반역의 담합'까지 가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유한국당 또한 두려웠든 마음이 콩밭에 가있었던 까닭이 어쨌든 탄핵반란의 엄청난 부역자들이 되었다. 그 언저리에 있었던 나름 지식인들은 무엇을 했다. 그대들이 언제 태극기를 흔들었나. 그대들 못잖게 지식인들이 많다. 더는 건방지게 훈수 둘 일이 아니며 또 들을 만큼 누구도 한가하지 않다.

문재인이 되어도 하기 나름이라는 이들이 제법 있다. 안희정이 되면 더 좋고 아니 되더라도 문희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한다. 꿈 깨라. 그들의 뿌리는 공산당이다. 그들은 오늘처럼 대한민국을 운동권의 식민지로 만들기는 커녕 동교동 식솔로 울분 삼킬 때조차, 김종필과 박태준이 공동정권으로 시퍼렇게 지분 가질 때조차 집권하자마자 대공계열을 죄다 학살한 자들이다. 노무현 때 그 고삐를 늦추는 바람에 적화가 10년이 더 늦어졌다고 울분을 터뜨리는 자들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잃어버린 세대'다. 일제시대마저 독립군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되겠냐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잘 되기를 빌었는데 운동권의 영향권 안에 있는 50대부터 20대까지 철부지들은 오늘도 촛불명예혁명을 읊조리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이 비로소 잘 되어가고 있지 않냐 아직도 노란 리본만 보면 울컥 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많음을 한때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하기 나름이란 것은 어차피 적폐로 폐기처분 될 것인데 얼굴마담으로 한때 재미 보다가 가거나 아니면 바로 가거나 그 다름일 뿐이다. 먼저 죽은 무정이나 허

가이나 6.25 끝나고 죽은 박헌영이나 뭐가 다른가.

정권을 뺏기면 야심가들의 꿈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리셋이 아니라 제 목숨을 재촉하는 리셋이 될 것이다. 여기서 그만 멈추고 자신이 꽃가마에 타야 하는데 타고 보니 꽃상여일 수가 있다. 앞으로 대놓고 죽음의 굿판을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모르겠는가. 그들은 지난 30년 단 한 차례도 그 장사에서 손해 본 적이 없다.

1991년은 실패했다고? 아니다. 그때 노태우 정부의 힘을 쭉 빼면서 끝내 김영삼의 당선을 이뤘다. 어리석은 김영삼은 처음부터 우리민족끼리 외치면서 한완상과 김정남을 앞세워 운동권의 발판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2002년 노무현의 당선과 2008년 이명박의 조기 무력화. 마침내 세월호-광화문 해방구·탄핵반란까지 이어진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을 이제 날마다 벌여질 터이다.

결국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죽는 길밖에 없다. 이 나라에서 가장 한심한 노숙자들조차 세금지원이 넘쳐서 부지런 떨지 않아도 조금만 애쓰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그러니 노숙자들조차 앞서 보여준 지옥으로 가는 묵시록에서 견뎌낼 재간이 없다. 어찌 하겠는가. 외통수다. 오늘이 을사늑약을 뒤집어쓴 1905년 11월 17일이라 여기고 이제부터 독립전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

처음은 비밀 야전사령부다. 그 날이 오면, 오늘처럼 마음껏 애국태극기 집회 하고 돌아다니는 언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가 시나브로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해 나라를 통째 먹은 탄핵반란군들은 애국태극기 물결을 속속들이 꿰고 있다. 제대로 싸울 줄 알면서도 적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구국결사가 만들어져야 한다. 할 수 있다.

살고 싶은가? 곧장 독립전쟁에 나서라!

비록 탄핵반란군이 나라를 뒤엎었다 손치더라도 속았을망정 혁명을 꿈꾸던 젊은 날의 순수함은 빛바랜 추억이요 부패귀족이 되어 돈을 풀어도 잘 움직이지 않는 저들과 달리 애국태극기 물결은 애국전사들의 집합체다.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제 돈도 있으며 지난 녀 달 동안 야전훈련도 스스로 꽤나 거쳤다. 무엇보다 촛불반란군이 죽어도 따라올 수 없는 애국심이 있다.

다음으로 적과 아를 뚜렷이 해야 한다. 물 위로 드러난 부패귀족동맹이 언론노조-전교조-민노총을 비롯한 극우사대중북 부패운동권이라면 물 밑에서 움직이는 부패귀족동맹은 여의도-광화문-서초동으로 이어지는 부패기득권-귀족내각제개헌 세력이다. 그 날이 오면 그 역관계가 뒤집어질 것이다.

어느 때이든 그 머리를 때마다 정조준 탄핵하며 팔다리를 움직이는 신경망을 파고들어 끊어야 한다. 없는 살림에 아군은 복잡하다. 우군도 있고 용병도 있다. 우군은 앞에 모실 이들이며 용병은 거래 관계를 뚜렷하게 해야 한다.

셋째, 애국태극기 물결은 곧장 편제를 달리 하여 애국태극기 군대로 거듭 나아 한다. 그리고 애국태극기 군대는 속도로 이겨야 한다. 먼저 쟁점(Issue)을 걸어 싸움판을 만들고 곳곳에 파고들어 선전선동 해야 한다. 반역의 운동권이 아무리 빨리 대청소를 한다 하여도 반년은 걸린다. 그 반년 동안 반역운동권보다 앞질러 지난 녀 달 동안 한 만큼 하면 판을 뒤엎을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당연한 말이지만 비밀 야전사령부 직할로 참모부를 24시간 돌려야 할 것이다. 조심해라. 아무리 뛰어나도 뒤통이가 아니 되는 이들은 반드시 사고를 친다.

싸움거리는 널려 있다. 먼저 말한 귀족유공자 모

듬(5.18-민주화-촛불)부터 비롯해 젊은이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야 한다. 벤처 사기와 저축은행과 바다이야기로 서민들의 분노를 솟구치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새빨간 거짓말인 김대중-노무현 신화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 그 위에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다시 써야 한다. 탄핵반란군들이 종북보다 더한 ‘우리 자식들의 등골을 빼먹는 부패귀족들’임을,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사기꾼 반역운동권들’임을 밝혀 마침내 박 대통령의 순교를 넘어 30년 국공합작 시대의 어둠을 넘어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하늘을 열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 말한 전쟁을 누가 앞장서 벌일 것인가. 답은 하나다. 젊은이들이다. 앞으로 애국태극기 물결에서 나오는 모든 돈의 반은 애국 젊은이들을 키움에 써라. 가슴에 새겨야 한다. 오늘 애국태극기 물결은 대한문의 국민저항본부도 있지만 청계천의 재야우파도 있다.

1987년 6월 10일 그때 늙은 운동권들 다 모아봤자 오늘 청계천만큼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이 반역의 판을 만든 것은 엄청난 학생운동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애국태극기 물결이여. 그 늙은 운동권들처럼 살아남고 싶은가.

다시 말한다. 옛날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를 논 팔고 소 팔아 키우신 것처럼 젊은이들을, 재야우파의 젊은 전사들을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아낌없이 아니 빛을 내어서라도 모든 것을 갖다 바쳐 키워라. 오로지 그 길만이 지옥으로 가는 묵시록을 막고 아마겟돈을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외나무 길이다.

5·9 대선은 체제수호 vs 반체제 전쟁

이동호 미래한국 편집위원

자유민주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간의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우파는 양강구도를 만들 수 있는 보수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앞으로 1주일이 중요합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양강구도를 이뤄야 합니다.

5월 9일 대선의 대진표가 완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후보로,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로, 바른정당은 유승민 후보로,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로,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후보가 각각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 1주일이 관건입니다.

여전히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앞서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40% 내외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10% 후반에서 20% 초반을 기록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간의 경쟁입니다. 누가 2위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2위를 하는 후보를 중심으로 부동산이 급격히 쏠릴 것입니다. 만일 자유민주진영이 지지하는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양강구도를 이룬다면 자유민주진영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강에서 멀어진다면 역으로 반문연대 단일화에 몰릴 것입니다. 자유민주진영은 누가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자유민주진영은 나누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그리고 새누리당

26 정치 2017년 4월 14일 미래한국

본문



5·9 대선은 체제수호 vs 반체제 전쟁

자유민주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간의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우파는 양강구도를 만들 수 있는 보수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이동호 미래한국 편집위원

앞으로 1주일이 중요합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양강구도를 이뤄야 합니다.

5월 9일 대선의 대진표가 완성되었습니다.

다. 여전히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앞서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40% 내외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10% 후반에서 20% 초반을 기록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간의 경쟁입니다. 누가 2위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2위를 하는 후보를 중심으로 부동산이 급격히 쏠릴 것입니다.

만일 자유민주진영이 지지하는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양강구도를 이룬다면 자유민주진영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강에서 멀어진다면 역으로 반문연대 단일화에 몰릴

미래한국 2017년 4월 14일 정치 27

5·9 대선은 체제전쟁이다

이런 선거는 자유민주진영의 흥행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상대는 선거라는 합법공단을 활용해 변명의 자유대한민국을 다룬 체제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승민입니다. 북한은 공산정체주의자들과 그 부패하는 자들은 선거를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다룬 체제로 전환하려는 체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둘러싼 투쟁입니다. 선거라는 보수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체제를 둘러싼 투쟁입니다. 전체주의자들이 어떤 선거를 활용해 체제를 바꾸려 한다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촛불시위를 주동한 박근혜를 비판한 비상국민행동은 3월 11일 '2017 촛불국민대회'와 '300대 촛불계엄'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선거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정초고 있는 대의정치를 부정합니다. 촛불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의정치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수단이 행동이다 라고 선언한

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언문에 시 대의정치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시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헌법이 말하는 대의정치가 회복되어온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대의제는 평등한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군주에서 민주제로 넘어오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군주에 하에서는 군주를 세력하고는 아무런 규제를 권리, 자유가 없는 신인 즉 백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민주공화제 하에서 개인은 자유와 권리의 주체이자 평등한 존재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수반에 달립니다. 만일 이들이 각자 수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공화국은 수렴한 주권들의 각자 수권행사로 '각단적으로 대립'이 생깁니다.

평등한 개인들이 의한 무정부 상태를 극복하고, 공화국의 의사를 결정해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한 사상적 고뇌가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을 채택하고 있는 데의 핵심 구성요소가 되었습니다.

대의제는 우선 개인들의 생각이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개인들의 생각이 모여서 국정을 운영합니다. 복수의 생각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인들을 각자의 입장을 대변해 개인들의 다양한 생각을 복수의 결정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복수의 정당은 자신의 입장이 다수가 되기 위해 서로 경쟁하

제1부 안철수의 구성 및 운영

제2부 심의·이력 현황

제3부 종합평가

제4부 심의·이력 사례

부록

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선거를 일대일 구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5·9 대선은 체제전쟁이다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진영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상대는 선거라는 합법공간을 활용해 번영의 자유대한민국을 다른 체제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북한의 공산전체주의자들과 그에 부역하는 자들은 선거를 활용해 자유대한민국을 다른 체제로 전환하려는 체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둘러싼 투쟁입니다. 선거라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체제를 둘러싼 전쟁입니다. 전체주의자들이 이번 선거를 활용해 체제를 바꾸려 한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지난 수개월간 촛불시위를 주동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3월 11일 ‘2017 촛불권리선언’과 ‘100대 촛불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선언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의정치를 부정합니다. ‘촛불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의정치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주권자 행동이다’라고 선언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언문에서 대의정치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시키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헌법이 말하는 대의정치가 허물어진 데에 위기의 본질이 있습니다.

대의제는 평등한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군주제에서 민주제로 넘어오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군주

제 하에서는 군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주권과 권리, 자유가 없는 신민 즉 백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민주공화제 하에서 개인은 자유와 권리의 주체이자 평등한 존재입니다. 법 이외 어떤 존재도 자유로운 개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수천만에 달합니다. 만일 이들이 각자 주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공화국은 수천만 주권자들의 각자 주권행사로 극단적으로 대립할 것입니다.

평등한 개인들에 의한 무정부 상태를 극복하고, 공화국의 의사를 결집해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한 사상적 고려가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와 복수 정당제입니다.

대의제는 우선 개인들의 생각의 다양함을 전제합니다. 다원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개인들의 생각을 모으는 과정을 만듭니다. 복수의 정당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인들을 각자의 입장을 내세워 개인들의 다양한 생각을 복수의 정당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복수의 정당은 자신들의 입장이 다수가 되기 위해 서로 경쟁합니다. 복수의 정당이 대표자를 내세워 경쟁합니다. 주권자들은 복수의 정당이 내세운 대표들의 입장과 정책을 보고 투표로 자신의 주권을 대신 행사할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그 이들이 개인들의 지지를 모으려면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소중히 한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소중히 지켜질 것입니다 이것이 대의제와 복수정당제의 참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의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깊은 고려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국민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권력기관이 폭정에 이르지 못하도록 권력기관을 삼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삼권의 분립과 삼권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주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뽑힌 대표자에 의해 행사되는 제

한된 권력 등으로 개인들의 소중한 권리와 자유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비상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마련된 대의정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의정치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결국 전체주의로 가 기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 후보들의 체제도전 막아야

비상행동은 '10대 분야 10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10대 과제 중 ▷재벌체제 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좋은일자리·노동기본권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개혁 ▷언론개혁과 자유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항목을 보겠습니다. 공안통치기구개혁 항목에서 국정원의 수사권을 분리 및 이관하고 국정원에 대한 의회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실상 국정원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업무인 대북, 대공업무를 중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재벌체제 개혁 항목에 재벌 총수 등 범죄수익환수 특별법을 제정하고,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사회로 환수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재벌 총수의 개인 재산을 빼앗고, 대기업들이 미래투자를 위해 사내에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을 빼앗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실현된다면 국내에 남아 있을 대기업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실현된다면 노동조합의 극한적인 파업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업환경을 최악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외국투자가 중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투자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정책입니다. 비상행동은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을 아무

조건없이 재개하라고 주장합니다. 북한은 금강산을 관광하던 박왕자 씨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고사하고 한마디 사과도 아직 없습니다. 북한은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우리 국군과 민간인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을 공격했습니다. 우리 천안함에 있던 국군용사들이 무고한 희생을 당했습니다. 아직 북한으로부터 어떤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북한을 지원하라고 비상행동은 주장합니다. 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비상행동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통제권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것은 주한미군을 나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해마다 선전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그날부터 저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것은 겉으로는 평화를 주장하지만 그 본질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월남이 월맹과 평화협정을 체결한후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월맹의 공격으로 멸망했습니다. 그와 같은 수순을 북한과 그 동조자들은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월남과 현재 대한민국의 국력은 다릅니다. 그러나 내부에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면 대한민국은 내부로부터 허물어지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비상행동은 언론장악방지 4법을 제정하라고 합니다. 말은 언론장악방지법이지 속사정은 저들이 장악한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하자는 것입니다. 방송의 편성권을 언론노조와 동수로 구성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방송은 언론노조의 손 아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최근 최순실 사태에서 언론이 편향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 인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모든 언론이 언론노조의 손 아래 장악되어 한목소리로 전체주의화하는 광경을 목도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해체, 노동자 정권을 만들려는 '비상행동'

비상행동은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고자 주장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공산전체주의와 그 부역자들로부터 대한민국체제를 지키는 법이며, 테러방지법은 테러주의자들의 극단적인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자는 법입니다. 비상행동은 이들을 폐지하자고 주장합니다. 비상행동은 대한민국체제는 안중에 없는 듯합니다. 공산전체주의자들이 마음 놓고 활개치고, 테러분자들이 마음껏 활개치고 활동하는 세상 이것이 그들이 꿈꾸는 세상인 것입니다.

비상행동의 주장은 한미동맹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으로 위협하건 말건 무조건 대화를 재개하고 지원을 재개하라는 것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을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굴복해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노예의 평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룩한 번영은 그 기초가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재벌을 해외로 내쫓을 것입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하는 나라에 기업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대기업을 자국에 유치하려고 전력을 기울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실력 있는 대기업이 해외에 이주한다면 해당 국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비상행동의 주장대로 노조 활동과 관련해서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금지한다면 기업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할 수단이 없어집니다. 노조가 아무리 무리한 조건을 내걸고 파업을 해도 이들의 파업을 막을 수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노조 파업의 천국에 기업을 하겠다는 무모한 기업가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에 투자를 하겠다는 무모한 투자자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비상행동의 주장을 해석하면 한미동맹은 폐지되어 안보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신인도는 최악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노조의 불법파업은 막을 방법이 없고, 기업의 재산은 사회로 환수되어 기업환경은 최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투자는 없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동시 추락, 이들의 주장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의 번영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비상행동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비상행동의 주장은 주장에 머물지 않았 습니다. 비상행동의 주장은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비상행동의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많은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상행동의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차기정부의 개혁과제로 최우 선순위에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이번 대선을 두고 벌여 지는 체제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대한민국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동될 것입니다. 패배주의는 금물입니다. 자유민주진영이 하나로 뭉친다면 보수 유권자들이 그 뒤를 따를 것

입니다 우리가 패배주의에 휩싸여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를 쳐다보는 유권자들도 혼돈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권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민주 진영은 자유한국당 후보와 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야 합니다.

의결번호	2017대선-자심8
언론사	주식회사 한국미디어네트워크 (주간한국) 서울 중구 삼일대로 308 조양빌딩 본관 10층 대표이사 조상현
심의대상기사	주간한국 2017년 4월 24일자 14면 「文 사주, 安에 우월... 安 음택 훼손 변수」 제하의 칼럼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객관적 근거 없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는 역술인의 칼럼을 게재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 내용

[박민찬 대선풍수과학원장 칼럼] 19대 대통령 문재인 가장 유력

文 사주, 安에 우월... 安 음택 훼손 변수

19대 대통령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의 여러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돼 있다. 그동안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변동치고 그에 따라 후보와 당, 지지자들이 일희일비했지만 '운명'은 거스를 수 없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운명이 정해진다. 사주(四柱)는 운명이요, 운명은 미래이며 현실이다.

대선을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은 운명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확실시된다. 이는 각 대선주자를 풍수로 풀고 사주를 본 결과에 따른 것이다.

타고난 운명(사주팔자)으로 80%의 미래가 결정된다. 따라서 누구나 결정된 운명으로 미래를 살아가게 되는데, 운명은 직계조상 음택(묘지)에서 발원되며, 그 음택의 기(氣)가 직계 자손에게 영향이 미치게 되므로 운명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된다. 그러나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명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박민찬 도선풍수과학원장 칼럼

19대 대통령 문재인 가장 유력

文 사주, 安에 우월... 安 음택 훼손 변수

19대 대통령선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았다. 각 당의 여러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나섰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돼 있다. 그동안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변동치고 그대이라 후보와 당, 지지자들이 일희일비하지만 '운명'은 가스를 수 없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운명이 정해진다. 사주(四柱)란 운명이고, 운명은 미래이며 현실이다.

대선을 결투부터 말하지만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은 운명적으로 문재인이 가장 유력하다. 이는 각 대선주자를 풍수로 풀고 사주를 본 결과에 따른 것이다.

타고난 운명(사주팔자)으로 80%의 미래가 결정된다. 따라서 누구나 결정된 운명으로 미래를 살아가게 되는데, 운명은 직계조상 음택(묘지)에서 발원되며, 그 음택의 기(氣)가 직계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운명은 대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된다. 그러나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명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첫째로 조상 3대 음택 김·홍·여부 감편, 둘째로 타고난 사주팔자(년월일시) 감편, 셋째로 배우자 사주팔자 감편, 넷째로 살고 있는 양택 김·홍·여부 감편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 이번 대통령 선거와 같은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권 주자들의 운명을 비교하면 누가 대권에 성공할 것인지를 100% 알 수 있다.

이번 19대 대권주자 5인중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운명적 어려움과 현실을 감안하여 논외로 하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만을 비교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두 후보도 일부 조상음택과 사주(운명)만을 비교 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安 증조부묘 명당 중 명당, 조부묘 화장했다면 '큰 변' ... 文 부친묘 평범

먼저 2012년도에 같은 날 두 후보의 조상음택으로 본 대권주이다.

문재인의 조부와 그 윗대 조상은 아복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강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부친 묘지만 보게 되었다. 무사 천후로 공원묘지에 있는 부친묘지는 자손에게 무해무득이다. 청룡백호가 형성되어 자손들의 화목을 이루었고 현무가 원만하여 추진하는 일에 진행은 되지만 조산(현무 위이 훼손되어 구슬이 맑게 된다. 주작 형상이 약하게 있지만 재물이 넉넉하게 된다. 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귀성은 없다. 사주에도 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필자는 아니다. 그러나 2017년에 대권을 쥘 수



있는 관운이 강하게 들어왔기에 기회가 된 것이다. 이는 문 후보의 운명(사주)가 증조부 음택 덕으로 보인다.

안철수의 증조부 묘지도 부산에 있었다. 야산이었다. 짐작 못할 만큼 명당이다. 안철수의 운명이 증조부 명당 영향이라는 것을 거울을 보듯 알 수 있었다. 청룡백호는 물론 주위의 기가 모여져 화목을 이루었고, 주작(묘지 앞 산봉우리, 재물형상)이 묘지와 적당한 거리에 형성되어 있었고, 무덤보다 귀한 지손(인물)이 배출되는 귀성이 완벽하게 있다. 대개 조부보다 증조부의 음택이 강하게 들어오는 이치를 감안하면 안철수도 증조부의 영향이다. 그리고 증조부 묘지의 형상과 안철수의 운명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접했다. 사실인지 알 수 없으나 한지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조부묘지를 파묘하여 화장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큰 일을 하는 자손에게 치명적이 된다. 더구나 대권성공은 어렵게 된다. 누구나 생존하는 부모는 자손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이고 운명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장했던 조상묘를 파서 화장하는 것은 자손에게 흉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실례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10년에 명당에 묘신 조부묘를 파서 화장한 후 서술시장에서 내려왔고 그 후 재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 이회창 전 총재도 2010년에 부모 묘를 파서 화장하고 불과 몇 개월 후에 선진당 대표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그 후 정치에서 멀어졌다.

사주, 文 4월 이후 대권운... 安, 문제인보다 약하고 3월 이전 '운'

다음은 두 후보의 사주팔자(운명)를 비교해 보았다.

문후보는 1952년 음력 12월 10일 술사생이다(정확한 사주라고 판단함).

문후보는 64세부터 을, 경 함으로 담이 되었는데 금은 문후보에게 관운이다. 또한 64세부터 대운(70%)이 68세까지 5년 간 강하게 들어왔다. 현재 66세인데

2017년 정유년에도 사, 유, 축이 되어 함이 들어왔다.

결과적으로 대운과 년운, 달운에 관운이 강하게 들어왔다. 또한 4대운이므로 73세까지 관운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어 우여곡절 끝에 임기는 마치게 되지만 사주팔자에 골치 아픈 사건이 많은 팔자이다. 그러하여 불안정한 현실의 대한민국은 국가발전에 지장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자기 주장이 약한 사주이므로 아래 사람들로 인하여 힘들어진다. 아래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힘들어지게 된다.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게 된다. 재물에도 손실이 온다. 재물이 있어 돈은 있는데 나가는 편이다. 두뇌가 좋으나 안철수만 못하다.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이 나쁜진 않다. 그러나 현실을 생각하고 마음 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사주가 용해에 돼질 때 이었다. 진·해는 원진이 끼어 운명적으로 평생 구실이 많은 사주다.

결론적으로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가 혼란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이유는 천체천 개복으로 인해 국운이 상실되었고 청와대 타거 국가발전에 지장이 많은 흉타거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후보가 당선되면 청와대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국정을 수행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국가발전과 대통령 본인으로 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국운이 80% 영향이고 대통령력 20%이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1962년 음력 1월 22일 진사생이다. 이 사주는 정치보다 학자, 연구하는 팔자다. 특히 집요하게 하는 연구를 잘 한다. 고집이 세고 여러 사람과 융합을 잘 못한다. 따라서 정치가로는 맞지 않다. 어려서부터 55세까지는 따뜻한 운이 좋아서 승승장구한다. 2017년 56세에 관운이 강하게 들어와서 대권후보는 되지만 조 부묘 화장으로 인한 흉이 작용하고 문 후보가 음력 4월에 관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결론이다. 2017년은 해운에서 호랑이 띠에 호랑이 띠에 태어났으므로 해운과 달운이 원진이 되어 짜증나는 일이 많은 해가 된다. 사주에 재물이 좋다. 따라서 부자가 된다. 돈이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다. 또 문 후보보다 두뇌가 더 좋고 골은 사생이다.

안 후보가 아쉬운 것은 음력 3월에 관운이 문 후보보다 더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3월에 선거가 있었다면 대권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문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다른 후보보다 대권운이 강했으므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지난 2012년 대권에 나섰을 때도 문 풍수가는 안철수가 다른 후보들보다 대권운이 더 좋았기 때문에 안철수가 대권을 잡는다고 밝힌 바 있는 데, 그때 문 후보에게 양보하지 않고 밀고 나갔으면 대권에 성공했을 것이다. 지금은 대권운이 문 후보와 반대가 된 것이다.

다만, 두 후보의 4가지 운명중 배우자 대가와 양택 김·홍을 비교하였었는데, 이 두가지 김·홍 여부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끝으로 도선풍수 제34대 전수로서 국가가 안정될 수 있고 국운이 융성할 수 있는 결정적 방법을 제안한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국정을 수행한다면 말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잘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 운명을 결정하는 흙, 땅, 성, 쇠의 근원은 천체천 개복여부와 청와대 타거의 영향이다. 이 두 곳을 피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절대 잘 될 수 없다.

그런데 천운신조로 그 방안이 연구가 된 것이다. 결정적으로 양택 명당이 서울 근교에 있다. 이곳은 당선되면 바로 입주자가 가능하고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감안한 것이다.

그 양택 명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음을 본다면 천체천의 대복과 청와대의 흉타거를 피할 수 있으므로 나라가 곧 안정되고 국운이 융성하게 된다. 국가와 국민이 모든 면으로 기대 이상의 효력이 나타날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위대한 자연을 활용할 수 있다.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면 위대해 질 수 있다는 것이 풍수연구의 결론이다.

● 박민찬 도선풍수과학원장 프로필

박민찬 도선풍수과학원장은 도선대사(사신) 및 고승(고승)부터 비전대 문 풍수 '신개체형상' (神系系物形象)의 전수자(34대 후계자)로 풍수학 신인간 융합형 연구소 및 한국발견연구소 등을 열고 풍수학을 가르쳤으며, 동명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 풍수학 교수로 역임했다. 2009년 한국 현대문화332에 선정됐으며, 현재 도선풍수과학원 원장으로 있다. 1997년 대선(이회창 후보 별기), 2002년 대선(노무현 당선)을 정확하게 예측했으며, 삼성·현대 등 재벌(기업) 총수의 운명운 사면에 중앙 일간지 및 시사주간지 등을 통해 적중시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저서로 <천년만에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가 있다.

첫째로 조상 3대 음택 길·흥 여부 감평, 둘째로 타고난 사주팔자(년월일시) 감정, 셋째로 배우자 사주팔자 감정, 넷째로 살고 있는 양택 길·흥 여부 감평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 이번 대통령 선거와 같은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권주자들의 운명을 비교하면 누가 대권에 성공할 것인지 100% 알 수 있다.

이번 19대 대권주자 5인중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운명적 어려움과 현실을 감안하여 논외로 하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만을 비교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두 후보도 일부 조상음덕과 사주(운명)만을 비교 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安 증조부묘 명당 중 명당, 조부모 화장했다면 '큰 변'...文 부친묘 평범

먼저 2012년도에 같은 날 두 후보의 조상음덕으로 본 대권운이다.

문재인의 조부와 그 윗대 조상은 이북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감평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부친 묘지만 보게 되었다. 부산 천주교 공원묘지에 있는 부친 묘지는 자손에게 무해무득이다. 청룡백호가 형성되어 자손들의 화목을 이루었고, 현무가 원만하여 추진하는 일에 진행은 되지만 조산(현무위)이 훼손되어 구설이 많게 된다. 주작 형상이 약하게 있지만 재물도 넉넉하게 된다. 귀한 인물이 될수 있는 귀성은 없다. 사주에도 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팔자는 아니다. 그러나 2017년에 대권을 쥌 수 있는 관운이 강하게 들어왔기에 기회가 된 것이다. 이는 문 후보의 운명(사주)가 증조부 음택 덕으로 보인다.

안철수의 증조부 묘지도 부산에 있었다. 야산이었다. 깜짝 놀랄 만큼 명당이다. 안철수의 운명이 증조부 명당 영향이라는 것을 거울을 보듯 알 수 있었다. 청룡백호는 물론 주위의 기가 모여져 화목을

이루었고, 주작(묘지앞 산봉우리, 재물형상)이 묘지와 적당한 거리에 형성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귀한 자손(인물)이 배출되는 귀성이 완벽하게 있다. 대개 조부보다 증조부의 음덕이 강하게 들어오는 이치를 감안하면 안철수도 증조부의 영향이다. 그리고 증조부 묘지의 형상과 안철수의 운명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접했다. 사실인지 알 수 없으나 현지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조부묘지를 파묘하여 화장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큰일을 하는 자손에게 치명적이 된다. 더구나 대권성공은 어렵게 된다.

누구나 생존하는 부모는 자손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이고 운명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매장했던 조상묘를 파서 화장하는 것은 자손에게 흉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실례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2010년에 명당에 모신 조부묘를 파서 화장한 후 서울시장직에서 내려왔고 그 후 재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 이회창 전 총재도 2010년에 부모 묘를 파서 화장하고 불과 몇 개월 후에 선진당 대표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그후 정치에서 멀어졌다.

사주, 文 4월 이후 대권운... 安, 문재인보다 약하고 3월 이전 '운'

다음은 두 후보의 사주팔자(운명)을 비교해 보았다.

문후보는 1952년 음력 12월 10일 술시생이다(정확한 사주라고 판단함).

문후보는 64세부터 을, 경 합으로 금이 되었는데 금은 문 후보에게 관운이다. 또한 64세부터 대운(70%)이 68세까지 5년간 강하게 들어왔다. 현재 66세인데 2017년 정유년에도 사, 유, 축이 되어 함이 들어왔다.

결과적으로 대운과 년운, 달운에 관운이 강하게 들어왔다. 또한 4대운이므로 73세까지 관운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어 우여곡절 끝에 임기는 마치게 되지만 사주팔자에 골치 아픈 사건이 많은 팔자이다. 그리하여 집권 후 불안정한 현실의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에 지장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자기 주장이 약한 사주이므로 아래 사람들로 인하여 힘들어진다. 아래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힘들어지게 된다.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게 된다. 재물에도 손실이 온다. 재물운이 있어 돈은 있는데 나가는 편이다. 두뇌가 좋으나 안철수만 못하다.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이 나쁜진 않다. 그러나 현실을 생각하고 마음 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사주가 용해에 돼지날 태어났다. 진·해는 원진이 끼어 운명적으로 구설이 많은 사주다.

결론적으로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가 혼란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이유는 청계천 개복으로 인해 국운이 상실되었고 청와대 터가 국가발전에 지장이 많은 흉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후보가 당선되면 청와대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국가발전과 대통령 본인으로 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국운이 80% 영향이고 대통령이 20%이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1962년 음력 1월 22일 진시생이다. 이 사주는 정치보다 학자, 연구하는 팔자다. 특히 집요하게 하는 연구를 잘 한다. 고집이 세고 여러 사람과 융합을 잘 못한다. 따라서 정치가로는 맞지 않다. 어려서부터 55세까지는 따뜻한 운이 좋아서 승승장구한다. 2017년 56세에 관운이 강하게 들어와서 대권후보는 되지만 조 부묘 화장으로 인한 흉이 작용하고 문 후보가 음력 4월에 관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결론이다. 2017년은 해운에서 호랑이 띠에 호랑이 달에 태어났으므로 해운과 달운이 원진이 되어 짜증나는 일이 많은 해가 된다. 사주에 재물운이 좋다. 따라서 부자가 된다. 돈이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다. 또 문 후보보다 두뇌가 더 좋고 올곧은 사람이다.

안 후보가 아쉬운 것은 음력 3월에 관운이 문 후보보다 더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3월에 선거가 있었다면 대권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문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다른 후보보다 대권운이 강했으므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지난 2012년 대권에 나섰을 때도 본 풍수가는 안철수가 다른 후보들보다 대권운이 더 좋았기 때문에 안철수가 대권을 잡는 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때 문 후보에게 양보하지 않고 밀고 나갔으면 대권에 성공했을 것이다. 지금은 대권운이 문 후보와 반대가 된 것이다. 다만, 두 후보의 4가지 운명중 배우자 운명과 양택 길·흉을 비교하지 않았는데, 이 두가지 길·흉 여부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끝으로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로서 국가가 안정될 수 있고 국운이 융성할 수 있는 결정적 방법을 제안한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국정을 수행한다고 한 말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잘 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 운명을 결정하는 흥, 망, 성, 쇠의 근원은 청계천 복개 여부와 청와대 터의 영향이다. 이 두 곳을 피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절대 잘 될 수 없다.

그런데 천우신조로 그 방안이 연구가 된 것이다. 결정적으로 양택 명당이 서울 근교에 있다. 이곳은 당선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고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감안한 것이다.

그 양택 명당에서 대통령이 나랏일을 본다면 청계천의 대홍과 청와대의 흥터를 피할 수 있으므로 나라가 곧 안정되고 국운이 융성하게 된다. 국가와 국민이 모든 면으로 기대 이상의 효력이 나타날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위대한 자연을 활용할 수는 있다.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면 위대해 질 수 있다는 것이 풍수연구의 결론이다.

■ 박민찬 도선풍수과학원장 프로필

박민찬 도선풍수과학원장은 도선대사(신라말 고승)

로부터 비전돼 온 풍수 '신안계물형설(神眼系物形說)'의 전수자(34대 후계자)로 풍수지리 신안계 물형학 연구소 및 한국발전연구소를 열고 풍수학을 가르쳤으며, 동방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 풍수학 교수를 역임했다. 2009년 한국 현대인물33인에 선정됐으며, 현재 도선풍수과학원 원장으로 있다. 1997년 대선(이회창 후보 불가), 2002년 대선(노무현 당선)을 정확하게 예측했으며, 삼성·현대 등 재벌(기업과 총수)의 운명을 사전에 중앙 일간지 및 시사주간지 등을 통해 적중시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저서로 <천년만에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가 있다.

2. 주의

의결번호	2017대선-자심1
언론사	주식회사 대구일보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0 대구일보빌딩 6층 대표이사 이후혁
심의대상기사	대구일보 2017년 3월 21일자 26면 「불신과 걱정만 앞서는 대선 D-50」 제하의 사설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뉴스통신사의 사설을 전재하면서, 특정 출마 예정자에 대한 비판 부분을 누락하여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 내용

[시론] 불신과 걱정만 앞서는 대선 D-50

대선이 꼭 50일 남았다. 당마다 후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경선을 치르고 있어 조만간 대선후보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 하지만 벌써 이번 대선도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선 토론장

만 봐도 그렇다. 후보들 간의 막말과 뜬금없는 발언으로 눈총을 받는 일이 허다하고, 설익거나 허황한 공약도 난무하고 있다. 아예 제대로 된 공약이나 정책조차 갖추지 못한 채 뛰어들 후보들도 적지 않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를 겪고도,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전기로 삼기는 고사하고 구태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불신과 걱정만 앞서는 대선 D-50

시론

대선이 꼭 50일 남았다. 당마다 후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경선을 치르고 있어 조만간 대선후보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 하지만 벌써 이번 대선도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선 토론장만 봐도 그렇다. 후보들 간의 막말과 뜬금없는 발언으로 눈총을 받는 일이 허다하고, 설익거나 허황한 공약도 난무하고 있다. 아예 제대로 된 공약이나 정책조차 갖추지 못한 채 뛰어든 후보들도 적지 않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를 겪고도,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전기로 삼기는 고사하고 구태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호감보다 비호감 비율이 높았던 것도 유권자의 실망감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선이 끝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엄중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 배치를 둘러싼 대립, 위기 경고등을 켜 경제 등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는 것도 큰 과제다. 이런 내·외부의 과고를 헤쳐갈 대통령감을 찾는 것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방점일 것이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냉기류 속에 주변 강국들 사이

의 한국 소외 분위기가 두드러지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국론을 모으지 못하는 우리 내부에도 책임이 없지 않을 것이다. 사드 배치만 해도 각 정파나 대선후보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관련국들의 불신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경제 해법도 사분오열인 것은 마찬가지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 참석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의 즉각 폐지, 공무원의 정치참여 등을 약속했다. 민간은 구조개혁의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면서 '공직 철밥통'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개혁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공무원 정치참여를 허용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무슨 복안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대선이 가열되면 후보들은 눈앞에 표만 보일 정도로 욕심이 앞선다고 한다. 가끔 평상심이 흔들리는 듯한 언행을 하는 것도 이런 심리 기제와 무관치 않다. 이번 대선이라고 해서 별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달라져야 한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감정보다는 냉철한 이성으로 후보들을 꼼꼼히 비교·분석하고, 어느 후보가 이 엄중한 시기에 나라를 끌고 갈 만한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갖췄는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대선 이후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연필스

<대구일보 2017년 3월 21일자 26면>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호감보다 비호감 비율이 높았던 것도 유권자의 실망감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선이 끝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엄중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대립, 위기 경고등을 켜고 있는 경제 등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는 것도 큰 과제다. 이런 내·외부의 파고를 헤쳐갈 대통령감을 찾는 것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방점일 것이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냉기류 속에 주변 강국들 사이의 한국 소외 분위기가 두드러지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국론을 모으지 못하는 우리 내부에도 책임이 없지 않을 것이다. 사드배치만 해도 각 정파나 대선후보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관련국들의 불신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경제 해법도 사분오열인 것은 마찬가지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 참석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의 즉각 폐지, 공무원의 정치참여 등을 약속했다. 민간은 구조개혁의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면서 '공직 철밥통'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개혁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공무원 정치참여를 허용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무슨 복안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대선이 가열되면 후보들은 눈앞에 표만 보일 정도로 욕심이 앞선다고 한다. 가끔 평상심이 흔들리는 듯한 언행을 하는 것도 이런 심리 기제와 무관치 않다. 이번 대선이라고 해서 별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달라져야 한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감정보다는 냉철한 이성으로 후보들을 꼼꼼히 비교·분석하고, 어느 후보가 이 엄중한 시기에 나라를 끌고 갈 만한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갖췄는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대선 이후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참조 - 연합뉴스에 게재된 사실 원문(박스 부분이 전제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임)>



국가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연합시론] 불신과 걱정만 앞서는 대선 D-50

송고시간 | 2017/03/20 17:28 f t v G+ BAND blog | ☰ + -

(서울=연합뉴스) 대선이 꼭 50일 남았다. 각 당마다 후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경선을 치르고 있어 조만간 대선후보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 하지만 벌써 이번 대선도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선 토론장만 봐도 그렇다. 후보들 간의 막말과 뜬금없는 발언으로 눈총을 받는 일이 허다하고, 설익거나 허황한 공약도 난무하고 있다. 아예 제대로 된 공약이나 정책조사 갖추지 못한 채 뛰어난 후보들도 적지 않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를 겪고도,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전기로 삼기는 고사하고 구태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호감보다 비호감 비율이 높았던 것도 유권자의 실망감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선이 끝나면 누가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대립, 위기 경고등을 켜고 있는 경제 등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는 것도 큰 과제다. 이런 내외부의 파고를 헤쳐갈 대통령감을 찾는 것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방점일 것이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냉기류 속에 주변 강국들 사이의 한국 소외 분위기가 두드러지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국론을 모으지 못하는 우리 내부에도 책임이 없지 않을 것이다. 사드배치만 해도 각 정파나 대선후보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관련국들의 불신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경제 해법도 사본오열인 것은 마찬가지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 참석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 폐지, 공무원의 정치참여 등을 약속했다. 민간은 구조개혁의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면서 '공직 철발통'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개혁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공무원 정치참여를 허용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무슨 복안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최근 1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보수진영의 유력후보로 급부상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우 아직 변변한 공약조차 보이지 않는다. 홍 지사는 대선판에 뛰어들자마자 거친 연사로 여러 번 구설에 올랐다. 후보주자의 노이즈 마케팅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선은 지키는 것이 좋다.

대선이 가열되면 후보들은 눈앞에 표만 보일 정도로 욕심이 앞선다고 한다. 가끔 평상심이 흔들리는 듯한 언행을 하는 것도 이런 심리 기제와 무관치 않다. 이번 대선이라고 해서 별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달라져야 한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감정보다는 냉철한 이성으로 후보들을 꼼꼼히 비교·분석하고, 어느 후보가 이 엄중한 시기에 나라를 끌고 갈 만한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갖췄는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대선 이후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3/20 17:28 송고

의결번호	2017대선-자심5
언론사	경남매일신문 주식회사 경남 김해시 금관대로 1125, 6층 대표이사 이미호
심의대상기사	경남매일 2017년 4월 10일자 23면 「홍준표 전 경남지사, 이젠 국민 품으로」 제하의 칼럼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
내용

홍준표 전 경남지사, 이젠 국민 품으로

경남은 대통령 DNA의 보고(寶庫)다. 11명의 대통령 중 김영삼·노무현·전두환 대통령을 배출했다. 경남지사들이 재임 중 대통령을 꿈꾸었지만 대통령은 커녕, 정당후보로 선출된 적도 없었지만 홍준표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이때문에 홍준표 전 지사, 그는 4년 4개월의 하방을 접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다음 달 9일 실시되는 '장미 대선'에 나섰다. 타 지사들에 비해 한발 더 내디뎠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진영이 두동 각으로 갈라진데다 지리멸렬한 상황이어서 극적반전의 기대마

저 쉽지 않다. 이때문에 진보의 틈새에서 보수가치란 불씨를 되살리는 게 정치적 운명이라면 몰라도 '그 길'은 험로(險路)다.

하지만 도민들은 성원을 아끼지 않는다. 홍준표, 그는 가난을 프리미엄으로 삼는 듯 지난 아픔과 설움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 모래시계 검사 → 4선 의원 → 집권여당 대표 → 경남지사를 거쳐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지만, 변방에서의 저항적 돌진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듯, 직설적이다. 이때문에 구설수도 잦다. 하지만, 카타르시스즘을 느끼게 한다는 평도 받고 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혈혈단신으로 고향을 찾았다. 비주류의 길을 마다하지 않은 탓에 지금은 탄핵당한 대통령이라지만 지난 2012년 12월 19일 경남지사 보궐선거와 2014년 6월 지방선거

박재근 칼럼

홍준표 전 경남지사, 이제 국민 품으로

경남은 대통령 DNA의 보고(寶庫)다. 11명의 대통령 중 김영삼·노무현·전두환 대통령을 배출했다. 경남지사들이 재임 중 대통령을 꿈꾸었지만 대통령은커녕, 정당후보로 선출된 적도 없었지만 홍준표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이때문에 홍준표 전 지사, 그는 4년 4개월의 하방을 겪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다음 달 9일 실시되는 '잠미 대선'에 나섰다. 타 지사들에 비해 한 발 더 내디뎠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진영이 두동 각으로 갈라진데다 지리멸렬한 상황이어서 극적반전의 기대마저 쉽지 않다. 이때문에 진보의 틈새에서 보수가치란 불씨를 되살리는 게 정치적 운명이라면 몰라도 '그 길'은 험로(險路)다.

하지만 도민들은 성원을 아끼지 않는다. 홍준표, 그는 가난을 프리미엄으로 삼는 듯 지난 아픔과 설움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 모래시계 검사 → 4선 의원 → 집권여당 대표 → 경남지사를 거쳐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지만, 변방에서의 저항적 돌진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듯, 직설적이다. 이때문에 구설수도 잦다. 하지만, 카타르시즘을 느끼게 한다는 평도 받고 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혈혈단신으로 고향을 찾았다. 비주류의 길을 마다하지 않은 탓에 지금은 탄핵당한 대통령이라지만 지난 2012년 12월 19일 경남지사 보궐선거와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실세 '친박'의 심한 견제를 당했지만 경남도민이 선택했다.

홍준표 전 지사는 도민에게 당당함을 일깨웠고 미래먹거리를 위한 설계자였다. 그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 만년 하위였던 '청렴도 1위'와 무려 1조 3천488억 원이라는 부채를 갚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재로'도 달성했다. 항공국가산단, 나노융합 국가산단,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등 창원공단 후 40년 만에 3개 국가산

본사 전무이사



단지 동시유치관 폐거와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선정도 지사의 역량이 자리했다. 이어 한방·양방·해양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와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창원·거제 중심의 발전 축을 경남균형개발을 마련해 준 것도 사실이다.

또 진주의료원 폐쇄, 비리백대인 학교급식 감사, 포장만 화려한 경남미래교육재단의 포기, 도산하기관 재배치, 수백억 원의 예산과 자치단체장의 줄 사위가 예상되는 도지사 보궐선거 미실시 등은 과거의 작폐 청산과 폐해 방지를 위한 소신의 결단이었지만, 옹고그름에 앞서 찬성과 반대로 확연하게 나뉘지는 아픔과 수많은 논란을 야기한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대에는 뜻을 꼭 관철시키려는 의지와 피아구분도 요구되지만,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배려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모두를 가까이 하길 바라는 것은 도민의 바람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흑백갈등을 종식시킨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친구를 가까이하라, 그리고 적은 더 가까이하라'란 말을 남겼다. 적을 곁에 두면서 새로운 자극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기에 갈등을 종식시킨 대

통령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의 세계적 부상과 함께 외교적 난제로 사드보복이라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북한의 핵 위협도 받는 가운데 전 세계의 4차 산업혁명에도 각종 규제와 정치난맥으로 변화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뒤처지고 있다. 여기에 불균형 성장의 폐해,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을 증가는 국가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 나라상황은 천하 대란의 위기다. 정치 대란, 경제 대란, 사회 대란, 남북 대란, 외교 대란 등 국가적 위기에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가 되길 바랄 뿐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밝힌 천하 대란의 시대에 대처가 요구되는 점에서 주목받는 것은 도정 운용이다. 경남미래 50년을 위해 불통이라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소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공정성, 추진력과 과감한 결단력에 의한 도정 운용결과 공과(功過)는 차치하고라도 행정·재정 등 개혁의 지난 도정은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는 강점이다. 그는 "빨리 나라를 안정시키고 미래로 향해서 가야 할 때"라면서 "이 나라 청년들과 서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를 실행하려고 10일 퇴임식과 함께 먼 길을 떠난다. 바람이 때서워도 꽃이 피듯, 대통령의 길은 험해도 국가미래와 망가지 보수재건을 위한 운명이라면 사욕을 버리고 헌신과 희생을 각오해야 길이 열릴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님, 퇴임에 앞서 지사님이 남긴 '당당한 도민의 시대, 경남미래'의 완결에 도민들은 따름 흘릴 것입니다. 그 대신 경청, 관용과 소통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도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생물인 정치의 현장에서 살아 필떡이는 지도자 꿈'의 성취를 바라는 경남도민 지지자들 뜻을 전합니다.

<경남매일 2017년 4월 10일자 23면>

때 실제 ‘친박’의 심한 견제를 당했지만 경남도민이 선택했다.

홍준표 전 지사는 도민에게 당당함을 일깨웠고 미래먹거리를 위한 설계자였다. 그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 만년 하위였던 ‘청렴도 1위’와 무려 1조 3천488억 원이라는 부채를 갚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도 달성했다. 항공국가산단, 나노융합 국가산단,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등 창원공단 후 40년 만에 3개 국가산업단지 동시유치란 쾌거와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선정도 지사의 역량이 자리했다. 이어 한방·양방·해양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와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창원·거제 중심의 발전 축을 경남균형개발을 마련해 준 것도 사실이다.

또 진주의료원 폐쇄, 비리백태인 학교급식 감사, 포장만 화려한 경남미래교육재단의 포기, 도 산하기관 재배치, 수백억 원의 예산과 자치단체장의 출사퇴가 예상되는 도지사 보궐선거 미실시 등은 과거의 적폐 청산과 폐해 방지를 위한 소신의 결단이겠지만, 옳고 그름에 앞서 찬성과 반대로 확연하게 나뉘지는 아픔과 수많은 논란을 야기한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대에는 뜻을 꼭 관철시키려는 의지와 피아구분도 요구되지만,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배려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모두를 가까이 하길 바라는 것은 도민의 바람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흑백갈등을 종식시킨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친구를 가까이하라, 그리고 적은 더 가까이하라’란 말을 남겼다. 적을 곁에 두면서 새로운 자극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기에 갈등을 종식시킨 대통령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의 세계적 부상과 함께 외교적 난제로 사드보복이라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북한의 핵 위협도 받는 가운데 전 세계의 4차 산업혁명에도 각종 규제와 정치난맥으로 변화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뒤처지고 있다. 여기에 불균형 성장의 폐해,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률 증가는 국가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 나라상황은 천하대란의 위기다. 정치 대란, 경제 대란, 사회 대란, 남북 대란, 외교 대란 등 국가적 위기에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가 되길 바랄 뿐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밝힌 천하 대란의 시대에 대처가 요구되는 점에서 주목받는 것은 도정운용이다. 경남미래 50년을 위해 불통이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소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공정성, 추진력과 과감한 결단력에 의한 도정운용결과 공과(功過)는 차치하고라도 행정·재정 등 개혁의 지난 도정은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는 강점이다. 그는 “빨리 나라를 안정시키고 미래로 향해서 가야 할 때”라면서 “이 나라 청년들과 서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를 실행하려고 10일 퇴임식과 함께 먼 길을 떠난다. 바람이 매서워도 꽃이 피듯, 대통령의 길은 험해도 국가미래와 망가진 보수재건을 위한 운명이라면 사욕을 버리고 헌신과 희생을 각오해야 길이 열릴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님, 퇴임에 앞서 지사님이 남긴 ‘당당한 도민의 시대, 경남미래’의 완결에 도민들은 맘을 흘릴 것입니다. 그 대신 경청, 관용과 소통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도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생물인 정치의 현장에서 살아 펄떡이는 지도자 꿈’의 성취를 바라는 경남도민 지지자들 뜻을 전합니다.

의결번호	2017대선-자심9
언론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21길 52 대표이사 방상훈
심의대상기사	조선일보 2017년 5월 9일자 B7면 「[두근두근 뇌운동] [629]얼굴 삼행시」 제하의 기사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사진을 활용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기억하도록 하는 뇌 운동 훈련자료를 선거일 당일에 게재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치매 예방 뇌 훈련 게임
두근두근 뇌운동
頭筋 頭筋

(629) 얼굴 삼행시
조선일보·중앙치매센터 공동개발

1 신문에서 얼굴 사진이 큼지막하게 나온 기사를 찾아 읽어 보세요.

2 가위나 칼로 사진들 오려서 공책에 붙입니다.

3 사진 속 인물 이름을 기억해 예시처럼 (네모) 안에 한 자씩 적어보세요.

文 “정치보복은 없다”...



문 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 _____

인 _____

4 사진 속 인물의 생김새나 분위기가 잘 나타나도록 삼행시를 지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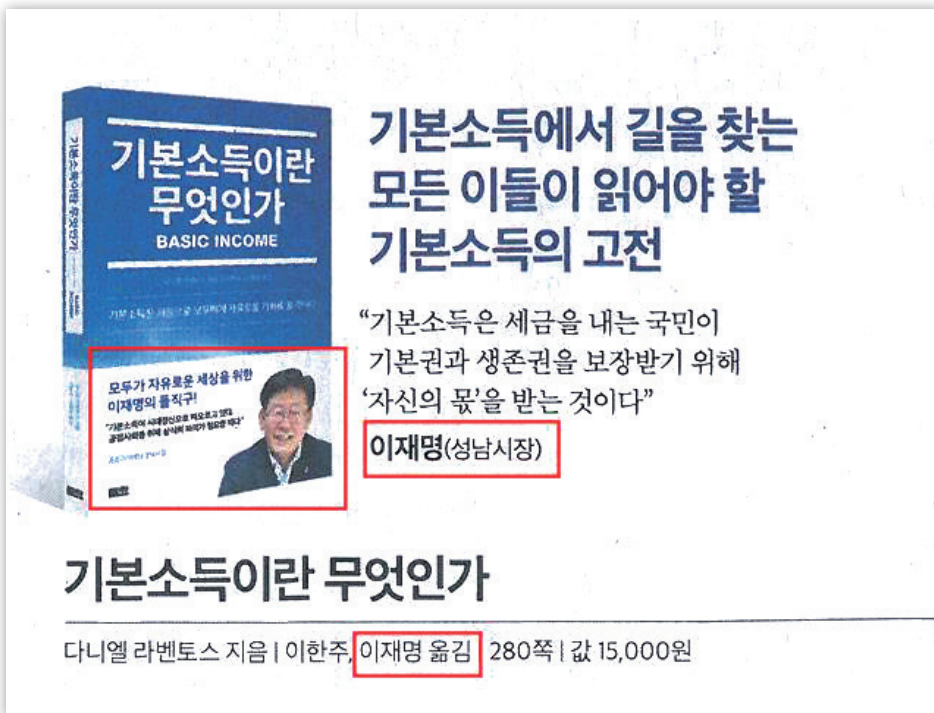
5 다음 날 사진만 보고 인물 이름을 기억해 보세요. 잘 기억하지 않으면 삼행시의 첫 행, 그래도 어려우면 둘째 행, 셋째 행까지 보고 기억해 보세요.

삼행시를 이용해 사람 이름과 생김새를 기억하는 반복 훈련입니다.
(효과: 언어능력, 집중 기능)·강인 문의: 조선일보 독자서비스센터(1577-8585)

<조선일보 2017년 5월 9일자 B7면>

3. 권고

의결번호	2017대선-자심2
언론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경향신문) 서울 중구 정동길 3 대표이사 이동현
심의대상기사	경향신문 2017년 3월 22일자 2면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제하의 광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명의를 드러나는 저서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2항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1항,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향신문 2017년 3월 22일자 2면>

의결번호	2017대선-자심3
언론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간경향) 서울 중구 정동길 3 대표이사 이동현
심의대상기사	주간경향 2017년 3월 21일자 21면 「명사들의 아주 특별한 서재 - 책과 연애하는 41가지 방법」제하의 광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명이가 드러나는 저서광고로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2항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1항,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간경향 2017년 3월 21일자 21면>

의결번호	2017대선-자심6
언론사	주식회사 시민일보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2, 4층 대표이사 최정호
심의대상기사	시민일보 2017년 4월 18일자 3면 「'당선 가능성' 문재인 vs. '더 좋은 후보' 안철수?」 제하의 칼럼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주변의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특정 후보자를 '더 좋은 후보'로 표현하고, '더 좋은 후보'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 내용

‘당선 가능성’ 문재인 vs. ‘더 좋은 후보’ 안철수? 고하승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대선후보 지지율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면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이미 2016년 4·13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당시 대부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과반 의석을 예상했는데 완전히 빗나간 결과가 나온 것이다. 실제 총선 사흘 전 여론조사 업체들이 예상했던 의석수는 새누리당 최소 157석~최대 175석, 더불어민주당 83석~100석, 국민의당 25석~32석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는데 그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123석을 차지해 원내 1당이 됐다. 국민의당도 최대 예측 의석수를 뛰어넘어 38석을 차지했다.

이번에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여론조사의

‘당선 가능성’ 문재인 vs. ‘더 좋은 후보’ 안철수?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대선후보 지지율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면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이미 2016년 4.13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당시 대부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과반 의석을 예상했는데 완전히 빗나간 결과가 나온 것이다. 실제 총선 사흘 전 여론조사 업체들이 예상했던 의석수는 새누리당 최소 157석~최대 175석, 더불어민주당 83석~100석, 국민의당 25석~32석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는가.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는데 그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123석을 차지해 원내 1당이 됐다. 국민의당도 최대 예측 의석수를 뛰어넘어 38석을 차지했다.

이번에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여론조사의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1995년 조스퐁과 시라크가 결선에서 맞붙었을 때 대부분 여론조사 기관은 조스퐁의 승리를 예측했지만 결과는 시라크 당선이었다. 미국의 경우 역시 여론조사 기관은 트럼프 당선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아침 햇살

고하승 편집국장

그런데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다. 이게 문제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자.

여론조사업체 칸타퍼블리가 조선일보의 의뢰로 14~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자 가상대결에서 문재인 후보 36.3%, 안철수 후보 31%로 문 후보가 오차범위내에서 조금 앞섰다. 이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7.2%), 심상정 정의당 후보(2.7%),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2.1%)로 나타났다.

문재인-안철수 가상 양자대결에선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경우도 있지만, 다자 대결에선 여전히 문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많았다. 하지만 그 차이는 오차범위 안팎이어서 사실상 접전 양상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인식만 심어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이 조사에서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50.2%의 응답자가 문재인 후보를, 26.6%가 안철수 후보를 꼽았다. 이어 홍준표 2.2%, 유승민 후보 0.6%, 심상정 0.2%, ‘없다·모르겠다’ 20.3%다.

그런데 ‘주변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안 후보 30.4%, 문 후보 28.5%로 비록 오차범위 이내이지만 ‘안철수’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

이어 홍 후보 4%, 유 후보 1.3%, 심 후보 0.4%, ‘없다·모르겠다’ 35.5%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방법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고 응답률은

15.3%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마디로 당선 가능성은 대체론 후보인 문재인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최근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안철수가 더 좋은 후보라고 생각한 유권자들 가운데 일부가 그의 당선 가능성을 낮게 보고 투표현장에 나가지 않아 기권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심각한 여론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 각 언론사들이 지극치럼 무분별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수치를 마치 순위를 매기듯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이 ‘더 좋은 후보’에게 소신투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지양돼야 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거듭 말하지만 유권자들로 하여금 ‘당선 가능성’과 ‘더 좋은 후보’ 사이에서 머뭇거리게 만드는 여론조사 결과라면 차라리 발표하지 않는 게 훨씬 낫다.

모쪼록 유권자들은 ‘당선 가능성’ 때문에 ‘더 좋은 후보’를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시민일보 2017년 4월 18일자 3면>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1995년 조스팽과 시라크가 결선에서 맞붙었을 때 대부분 여론조사 기관은 조스팽의 승리를 예측했지만 결과는 시라크 당선이었다. 미국의 경우 역시 여론조사 기관은 트럼프 당선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다. 이게 문제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자.

여론조사업체 칸타퍼블릭이 조선일보의 의뢰로 14~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자 가상대결에서 문재인 후보 36.3%, 안철수 후보 31%로 문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이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7.2%), 심상정 정의당 후보(2.7%),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2.1%)로 나타났다.

문재인-안철수 가상 양자대결에선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경우도 있지만, 다자 대결에선 여전히 문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많았다. 하지만 그 차이는 오차범위 안팎이어서 사실상 접전양상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잘 못된 인식만 심어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이 조사에서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50.2%의 응답자가 문재인 후보를, 26.6%가 안철수 후보를 꼽았다. 이어 홍준표 2.2%, 유승민 후보 0.6%, 심상정 0.2%, '없다·모르겠다' 20.3%다.

그런데 '주변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안 후보

30.4%, 문 후보 28.5%로 비록 오차범위 이내이지만 '안철수'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

이어 홍 후보 4%, 유 후보 1.3%, 심 후보 0.4%, '없다·모르겠다' 35.5%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임의전화 걸기(RDD) 방법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이고 응답률은 15.3%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마디로 당선 가능성은 대세론 후보인 문재인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최근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안철수가 더 좋은 후보라고 생각한 유권자들 가운데 일부가 그의 당선 가능성을 낮게 보고 투표현장에 나가지 않아 기권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심각한 여론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 각 언론사들이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수치를 마치 순위를 매기 듯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이 '더 좋은 후보'에게 소신투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지양돼야 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거듭 말하지만 유권자들로 하여금 '당선 가능성'과 '더 좋은 후보' 사이에서 머뭇거리게 만드는 여론조사 결과라면 차라리 발표하지 않는 게 훨씬 낫다.

모쪼록 유권자들은 '당선 가능성' 때문에 '더 좋은 후보'를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의결번호	2017대선-자심7
언론사	주식회사 영남일보 대구 동구 동대구로 441 대표이사 손인락
심의대상기사	영남일보 2017년 4월 24일자 11면 「5월9일 대통령 선거-대권은?」 제하의 광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된다는 예측을 포함한 역학연구소 광고를 게재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줄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월9일 대통령선거 -대권은?

이미 카페를 통해 예언한 이번 대통령은
靑龍의 깃발아래서 일어난 **문재** 없는
사람 **(ㄱ)** 이 잡는다!!!

수승한 운명감정 (예약)
특출한 이름/상호 <작명>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과 인용, 그시기 음력2월까지 정확히 예측한 작금에 최고의 기문둔갑 술객인 운곡선생의 예언기록이 카페 <http://cafe.naver.com/48goq>에 있습니다.



- ◆ 최고의 운명학 "운곡-奇門遁甲"상/하 (P.1793) 실증예문(803문)
- ◆ 왕초보에서 최고의 고수 에이르는 "동영상 강의" -561시간(2324GB)

(사주프로그램 무료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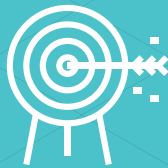
기문둔갑미래운명연구소

연락처 : 010-9392-5222
주소: 대구시 서구 비산동 541-32

<영남일보 2017년 4월 24일자 11면>



제2장 시정요구심의



의결번호	2017대선-시심1
시정요구인	문재인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중앙일보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0 대표이사 김교준
심의대상기사	중앙일보 2017년 4월 13일자 34면 「한 달 후 대한민국」 및 4월 20일자 34면 「3주 후 대한민국」 제하의 칼럼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신청취지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를 요구한다.
이유	<p>피시정요구인은 2회에 걸쳐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자의 당선을 가정한 칼럼을 게재하였으며 이중 4월 13일자 「한 달 후 대한민국」 제하의 칼럼에서는 미국의 북쪽에 후보자가 대응하는 내용을, 4월 20일자 「3주 후 대한민국」 제하의 칼럼에서는 후보자가 소속당 외의 정치인들과 협치하는 내용을 상상하고 그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표명하였다.</p> <p>시정요구인은 위 심의대상 칼럼이 문재인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 안보불안이 발생할 것처럼 묘사하고, 후보자의 대북정책, 집권능력, 경제철학 등을 폄하하였으며, 후보자를 ‘좌파 대통령’, ‘정서적 친북주의자’ 등 편향적으로 표현하고, 후보자의 정책 및 한반도 정세를 기초로 장래의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p> <p>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언론인으로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자의 당선을 가정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예측한 것일 뿐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고, 문재인 후보자, 김관진 안보실장 등의 평소 발언 및 행동 등을 토대로 작성하여 객관적 근거가 있으며, 상상임을 명확히 밝힌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항변하였다.</p> <p>살피건대, 언론이 보도를 통해 선거 후보자의 자질, 능력 등을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이고, 보도의 형식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반드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독자가 오도되거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표현해야 한다. 심의대상 칼럼은 비록 상상이라고 밝히긴 하였으나 특정 후보자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그 내용 일부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유사 칼럼을 연속적으로 게재한 점, 피시정요구인이 중앙일간지로서 영향력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위 심의대상 칼럼은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인정된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한 달 후 대한민국

이정재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이건 그냥 상상이다. 현실에선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2017년 5월 15일 아침부터 시장은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었다. 주가(KOSPI)는 1000 밑으로 주저앉았고 원화 값은 달러당 2000원을 훌쩍 넘겼다. 사람들은 생수를 사 재고, 라면을 박스째 챙기느라 마트로 몰려들었다. '대북 폭격설, 오늘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 전쟁의 공포가 이날 한반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급히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찾았다. 김관진은 박근혜 정부 사람이지만 아직 문재인은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할 시간이 없었다. 내각도 마찬가지, 새 정부 내각이 출범하려면 두세 달은 더 걸릴 터

였다. 광화문 집무실도 완공되지 않아 문재인은 청와대를 임시 집무실로 사용 중이었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통보하겠지요?” 김관진은 딱 잘랐다. “한 달 전부터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때린다. ‘문재인이 되면 통보 없이 때리고, 안철수가 되면 통보하고 때리고, 홍준표가 되면 상의하고 때린다’라고.”

에둘러 말했지만, 문재인이 그 말뜻을 못 알아들을 리 없다. 한 달 전 시리아 폭격 때는 미국이 한국에 알려줬다. 김관진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20여 분 통화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다 나 때문이란 말이지, 좌파 대통령이라서.” 간신히 38%의 득표로 대통령이 됐다. 미국의 북폭설로 홍준표에게 20%의 표가 몰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웃고 있을 사람은 안철수였을지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 에겐 일등공신인 셈이다. 하지만 취임 일주일 이다 되도록 트럼프의 축하 전화도 받지 못한 터다. 애초 며칠 전 취임사에 ‘남북 대화, 북한 방문, 개성공단 재개’란 문구를 집어넣은 것이

화근이었다. 이런 말들이 트럼프를 자극했을 수 있다. “나는 빼고 싶었는데, 참모들이 우기는 통에... 휴~. 나는 왜 그들의 말을 거절하지 못할까?” 혼잣말을 되뇌며 문재인은 절로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다고 정말 북폭을? 가능성은 0.00001%지만 완전히 무시할 순 없었다.

문재인은 즉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 북폭이 이뤄지면 즉시 북한의 장사정포가 남한을 향해 불을 뿜을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김관진은 단호했다. ‘즉각 대응 사격, 지휘부까지 처절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그제 연평도 사태 이후 군의 지침입니다.’ 문재인은 “그럴 순 없다. 대응 사격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관진은 즉시 사표를 던졌다. “군은 만에 하나를 준비하는 집단, 그 만에 하나의 순간에 침묵하라고 하면 존재 의의가 없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도 동조했다. 나라는 절체절명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문제

전쟁의 공포가 지배할 때 리더가 흔들려선 안 된다

인의 청와대는 어쩔 줄 모르고 그저 분노를 터뜨릴 뿐이었다. 누군지도 모를 상대를 향해.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저 상상이다. 하필 왜 문재인이냐고? 그가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서다. 4월 전쟁설이 돌 만큼 한반도 상황이 위급하다. 문재인도 위급함을 안다. 요즘 들어 평소 소신을 조금 굽히고 안보로 한 발짝 우클릭했다. 하지만 그 우클릭이라는 게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하면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정도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한가한 대책일 뿐이다. 안철수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햇볕정책의 신도’ 박지원을 대입하면 답이 안 나온다. 하필 절체절명의 한반도에 문재인과 안철수, 안보 신뢰 자산이 가장 부족한 두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될 판이다.

남은 한 달, 이들이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갈릴 것이다. 두루뭉실한 말 뒤에 숨어선 안 된다. 아예 두 사람이 끝장 토론을 벌여보라. 그래서 안보 이슈를 국가적 담론으로 끌어올려 보라. 그걸 보고 국민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한 달 후, 석 달 후, 일 년 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내가 뿜을 그 가 어떻게 행동할지 국민은 묻고 알아야 한다. 이번 투표야말로 정말 국가 존망이 내 손에 달린 것일 수 있다.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보도
내용

[이정재의 시사각각] 한 달 후 대한민국

전쟁의 공포가 지배할 때 리더가 흔들려선 안 된다

이건 그냥 상상이다. 현실에선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2017년 5월 15일. 아침부터 시장은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었다. 주가(KOSPI)는 1000 밑으로 주저앉았고 원화 값은 달러당 2000원을 훌쩍 넘겼다. 사람들은 생수를 사 재고, 라면을 박스째 챙기느라 마트로 몰려들었다. ‘대북 폭격설, 오늘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 전쟁의 공포가 이날 한반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급히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찾았다. 김관진은 박근혜 정부 사람이지만 아직 문재인은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할 시간이 없었다. 내각도 마찬가지로, 새 정부 내각이 출범하려면 두세 달은 더 걸릴 터였다. 광화문 집무실도 완공되지 않아 문재인은 청와대를 임시 집무실로 사용 중이었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통보하겠지요?” 김관진은 딱 잘랐다. “한 달 전부터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때린다. ‘문재인이 되면 통보 없이 때리고, 안철수가 되면 통보하고 때리고, 홍준표가 되면 상의하고 때린다’라고.”

에둘러 말했지만, 문재인이 그 말뜻을 못 알아들을 리 없다. 한 달 전 시리아 폭격 때는 미국이 한국에 알려줬다. 김관진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20여 분 통화를 했다고 한다. 그러

나 이번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다 나 때문이란 말이지, 좌파 대통령이라서.” 간신히 38%의 득표로 대통령이 됐다. 미국의 북폭설로 홍준표에게 20%의 표가 몰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웃고 있을 사람은 안철수였을지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에겐 일등공신인 셈이다. 하지만 취임 일주일도 다 되도록 트럼프의 축하 전화도 받지 못한 터다. 애초 며칠 전 취임사에 ‘남북 대화, 북한 방문, 개성공단 재개’란 문구를 집어넣은 것이 화근이었다. 이런 말들이 트럼프를 자극했을 수 있다. “나는 빼고 싶었는데, 참모들이 우기는 통에... 휴~. 나는 왜 그들의 말을 거절하지 못할까.” 혼잣말을 되뇌며 문재인은 절로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다고 정말 북폭을? 가능성은 0.00001%지만 완전히 무시할 순 없었다.

문재인은 즉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 북폭이 이뤄지면 즉시 북한의 장사정포가 남한을 향해 불을 뿜을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김관진은 단호했다. ‘즉각 대응 사격, 지휘부까지 처절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그게 연평도 사태 이후 군의 지침입니다.’ 문재인은 “그럴 순 없다. 대응 사격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관진은 즉시 사표를 던졌다. “군은 만에 하나를 준비하는 집단, 그 만에 하나의 순간에 침묵하라고 하면 존재 의의가 없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도 동조했다. 나라는 절체절명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문재인이 청와대는 어쩔 줄 모르고 그저 분노를 터뜨릴 뿐이었다. 누군지도 모를 상대를 향해.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저 상상이다. 하필 왜 문재인이냐고? 그가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서다. 4

월 전쟁설이 돌 만큼 한반도 상황이 위급하다. 문재인도 위급함을 안다. 요즘 들어 평소 소신을 조금 굽히고 안보로 한 발짝 우클릭했다. 하지만 그 우클릭이라는 게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하면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정도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한가한 대책일 뿐이다. 안철수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햇볕정책의 신도’ 박지원을 대입하면 답이 안 나온다. 하필 절체절명의 한반도에 문재인과 안철수, 안보 신뢰 자산이 가장 부족한 두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될 판이다.

남은 한 달, 이들이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갈릴 것이다. 두루뭉실한 말 뒤에 숨어선 안 된다. 아예 두 사람이 끝장 토론을 벌여보라. 그래서 안보 이슈를 국가적 담론으로 끌어올려 보라. 그걸 보고 국민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한 달 후, 석 달 후, 일 년 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내가 뽑을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 국민은 묻고 알아야 한다. 이번 투표야말로 정말 국가 존망이 내 손에 달린 것일 수 있다.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3주 후 대한민국

이정재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이건 그냥 상상이다. 현실에선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5월 15일, 아침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활기가 흘렀다. 오늘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인준 표결이 있는 날이다.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다. 지난주 청문회도 요식행위처럼 지나갔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물론 보수 의 적통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도 크게 반발하지 못했다. 청문회는 유아무야, 간혹 더담이 나올 정도였다. 언론에선 아예 '통과의례'란 제목을 뽑고 있었다. 날 세운 공격도, 무조건 국정외 뒷다리를 잡아

채는 야당의 모습도 없었다. 하기가 사실상 국민투표로 당선된 총리 아닌가.

돌이켜보면 김종인 총리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 투표 일주일 전 문재인은 승부수를 던졌다. "당선되면 김종인을 국무총리로 모시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그와 임기를 같이할 것이며, 헌법이 규정한 책임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를 투표를 통해 국민의 뜻으로 확인받겠다고 했다. 사실상 미국 대선의 러닝메이트 부통령처럼 모시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완벽한 보수주의자'로 불린 마이크 펜스를 러닝메이트로 영입한 것과 같았다.

바짝 쫓아오는 안철수 후보를 떼어놓기 위한 초강수였다. 선거관이 본격 시작된 4월 중순 문재인은 핵심 구호였던 '적폐 청산'을 청산하고 대신 대통령-협치를 말했지만 중도·보수의 표심은 꺾이지 않았다. 베레모를 쓰고 안보를 외쳤지만 '정서적 친북주의자'란 단단한 딱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안철수도 안보와 협치를 더 세고 강하게 말하고 있었다. 화끈한 한 방, 차별화가 필요했다.

협치의 증거는 뭔가. 사람이다. 통합이라는 말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인사다. 적폐 청산의 진정성은 '내 안의 적폐부터

청산할 때' 나온다. 협치의 왕도는 적(상대)의 사람까지 중용하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의 아이콘 김종인은 안보 보수의 상징이기도 하다. 문재인은 독선이 싫다며 당을 박차고 나간 '적'이기도 하다. 그를 삼고초려 끝에 모신 것으로 사실상 대선 레이스는 막을 내렸다. 다음 일은 그냥 순리대로 흘러갔다. 김종인은 신(新)보수의 적자로 떠오른 유승민을 경제 부총리로 지명했다. 유승민의 경제 철학은 더불어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터였다.

문재인은 무너진 4강 외교 복원도 협치로 시작했다. 안철수 후보에게 중국 특사를, 반기문에게 미국 특사를 부탁했다. 부처 개편은 최소한으로 줄였다. 장관 임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안에 조각이 끝날 터였다. 투표 전 많은 우려는 기우로 끝났다. '누가 되든 박근혜 정부 장관들과 최소 두세 달은 동거해야 한다. 야당의 발목 잡기로 장관 임명은 커

녕 정부 조직 개편도 안 되는 큰 국정 혼란이 이어질 것이다. 총리 임명에만 해가 바뀔지도 모른다. 안보 불안으로 태극기 부대가 연일 광화문광장을 메우고 시위를 벌일 것이다.' 김종인 국민투표 총리가 이 모든 우려를 잠재운 것이다. 비록 소 대한민국 정치에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했다. 문재인은 입가에도 미소가 떠올랐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냥 상상이다. 현실은 많이 다르다. 문재인은 4월 후보 수락 때 "새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만들어 국정 혼란 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캠프 내 분위기로 보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캠프 관계자는 "총리·장관 인선은 시기상조"라며 "노리는 사람이 많아 말도 꺼내기 힘들다"고 전했다. 게다가 인선을 미루는 게 확장성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실정이나 러닝메이트 총리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닐 것이다.

이런 선거는 다르다. 초유의 야야(野野) 전쟁이다. 결국 확장성에서 승부가 날 것이다. 러닝메이트 총리는 현실 모르는 백면서생의 엉뚱한 상상일 수 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 상상력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았나. 뭐는 못하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상대를 겨냥한 후보, 100%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후보, 그가 누구든 나는 그에게 한표를 던지려나.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협치·통합 말만 하지 말고
인사·사람으로 보여달라

보도
내용

[이정재의 시사각각] 3주 후 대한민국

협치·통합 말만 하지 말고 인사·사람으로 보여달라

이건 그냥 상상이다. 현실에선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5월 15일. 아침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활기가 흘렀다. 오늘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인준 표결이 있는 날이다.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다. 지난주 청문회도 요식행위처럼 지나갔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물론 보수의 적통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도 크게 반발하지 못했다. 청문회는 유아무야, 간혹 덕담이 나올 정도였다. 언론에선 아예 ‘통과의례’란 제목을 뽑고 있었다. 날 세운 공격도, 무조건 국정 의뎀다리를 잡아채는 야당의 모습도 없었다. 하기가 사실상 국민투표로 당선된 총리 아닌가.

돌이켜보면 김종인 총리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 투표 일주일 전 문재인은 승부수를 던졌다. “당선되면 김종인을 국무총리로 모시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그와 임기를 같이할 것이며, 헌법이 규정한 책임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를 투표를 통해 국민의 뜻으로 확인받겠다고 했다. 사실상 미국 대선의 러닝메이트 부통령처럼 모시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완벽한 보수주의자’로 불린 마이크 펜스를 러닝메이트로 영입한 것과 같았다.

바짝 쫓아오는 안철수 후보를 떼어내기 위한 초강수였다. 선거판이 본격 시작된 4월 중순 문재인은 핵심 구호였던 ‘적폐 청산’을 청산하고 대신 대통합·협치를 말했지만 중도·보수의 표심은 꿈쩍하

지 않았다. 베레모를 쓰고 안보를 외쳤지만 ‘정서적 친북주의자’란 단단한 딱지는 좀체 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안철수도 안보와 협치를 더 세고 강하게 말하고 있었다. 화끈한 한 방, 차별화가 필요했다.

협치의 증거는 뭐가. 사람이다. 통합이라는 말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인사다. 적폐 청산의 진정성은 ‘내 안의 적폐부터 청산할 때’ 나온다. 협치의 왕도는 적(상대)의 사람까지 중용하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의 아이콘 김종인은 안보 보수의 상징이기도 하다. 문재인은 독선이 싫다며 당을 박차고 나간 ‘적’이기도 하다. 그를 삼고초려 끝에 모신 것으로 사실상 대선 레이스는 막을 내렸다. 다음 일은 그냥 순리대로 흘러갔다. 김종인은 신(新)보수의 적자로 떠오른 유승민을 경제 부총리로 지명했다. 유승민의 경제 철학은 더불어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터였다.

문재인은 무너진 4강 외교 복원도 협치로 시작했다. 안철수 후보에게 중국 특사를, 반기문에게 미국 특사를 부탁했다. 부처 개편은 최소한으로 줄였다. 장관 임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안에 조각이 끝날 터였다. 투표 전 많은 우려는 기우로 끝났다. ‘누가 되든 박근혜 정부 장관들과 최소 두세 달은 동거해야 한다. 야당의 발목 잡기로 장관 임명은 커녕 정부 조직 개편도 안 되는 큰 국정 혼란이 이어질 것이다. 총리 임명에만 해가 바뀔지도 모른다. 안보 불안으로 태극기 부대가 연일 광화문광장을 메우고 시위를 벌일 것이다.’ 김종인 국민투표 총리가 이 모든 우려를 잠재운 것이다. 비로소 대한민국 정치에 한줄기 빛이 보이는 듯했다. 문재인은 입가에도 미소가 떠올랐다.

다시 말하지만 이긴 그냥 상상이다. 현실은 많이 다르다. 문재인은 4월 후보 수락 때 “새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만들어 국정 혼란 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캠프 내 분위기로 보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캠프 관계자는 “총리·장관 인선은 시기상조”라며 “노리는 사람이 많아 말도 꺼내기 힘들다”고 전했다. 게다가 인선을 미루는 게 확장성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실정이니 러닝메이트 총리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닐 것이다.

이번 선거는 다르다. 초유의 야야(野野) 전쟁이다. 결국 확장성에서 승부가 날 것이다. 러닝메이트 총리는 현실 모르는 백면서생의 엉뚱한 상상일 수 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 상상력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았다. 뉘는 못하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상대를 꺾는 후보, 100% 대한민국을 실천하는 후보, 그가 누구든 나는 그에게 한표를 던지련다.

중앙일보 칼럼니스트